

아제르바이잔

정보수정일자: 2014. 08. 01

작성처: 바쿠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 6

II. 경제

- 경제지표 DB / 8
- 경제동향 및 전망 / 9
- 주요 산업 동향 / 12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17

III. 무역

1. **교역동향**
 - 수출입동향 / 18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0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22
 - 대한수입규제동향 / 23
 - 관세제도 / 24
 - 주요인증제도 / 26
 - 지식재산권 / 27
 - 통관절차 및 운송 / 29
2. **무역환경**
 - 수출유망품목 / 31
 - 시장특성 / 33
 - 바이어 발굴 / 35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37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39
 - 수출 성공실패사례 / 40
 - 수출 시 애로사항 / 4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43
- 투자 인센티브 제도 / 47
- 외국인 투자동향 / 48
- 한국기업 투자동향 / 49
- 한국기업 진출현황 / 50
-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 5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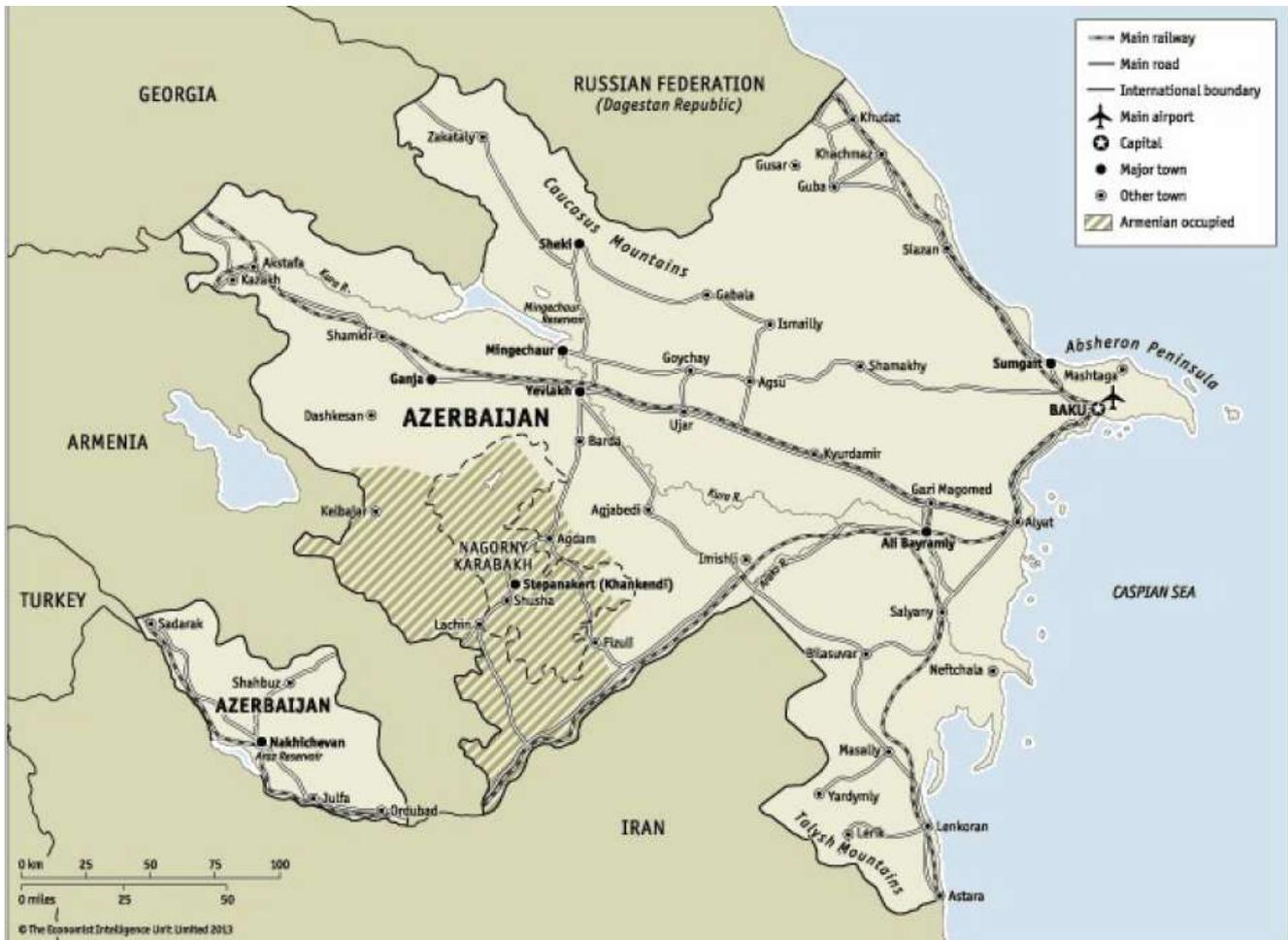
- 주요 투자법 내용 / 52
- 투자방식 / 54
- 투자진출형태 / 55
- 진출형태별 절차 / 56
-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 61
- 투자입지여건 / 63
-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67

3. 사업관리

- 노무관리제도 / 69
- 조세제도 / 71
- 금융제도 / 7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74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76
-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78
- 비즈니스 에티켓 / 79
- 이주정착 가이드 / 81
- 생활여건 / 89
- 취향정보 / 91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92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95
-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99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03
- KOTRA 무역관 안내 / 104



자료원: EIU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아제르바이잔
위치	카스피해 연안 카프카즈 지역
면적	86,6천 km ² (한반도의 2/5)
기후	아열대(수도권 지역), 건조 온대초원 기후 등 다양한 기후대 분포
수도	바쿠
인구	940만(2014년)
주요 도시	바쿠, 숨가이트, 겐자
민족	아제르바이잔인(90.6%), 레즈기인(2.2%), 러시아인(1.8%)
언어	아제르바이잔어 (공용어), 러시아어(상용어)
종교	이슬람교(93.4%), 러시아 정교(2.5%)
건국일	1991. 10. 18.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Ilham Aliyev 대통령

자료: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EIU Country Report 등(2014.08 기준 최신 자료)

나. 경제지표(2013)

GDP	73.5(단위: US\$10억)
실질경제성장률	5.8%
1인당 GDP	7,819(단위: US\$)
실업률	4.7%
물가상승률	2.5%
화폐단위	MANAT
환율	0.79 (단위: US\$1)
외채	6,999(단위: US\$백만)
외환보유고	10,636(단위: US\$백만)
산업구조	석유/가스 의존 경제
교역규모	○ 수출: 318억달러
	○ 수입: 112억달러
교역품	○ 수출: 석유/가스
	○ 수입: 공산품

자료: EIU 등(2014.08 기준 최신 자료)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 역사

1989.9	아제르바이잔 최고회의, 주권 선언
1990.1	소련군은 바쿠 폭동 진압을 이유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 수백 명을 희생시킴. 이후 무탈리보프를 새 지도자로 선출하였으나 소련 해체 직전인 1991년 8월 독립 선언
1991.10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탄생
1992.3	인근국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전쟁 돌입
1992.6	전쟁 중 집권한 민족주의자 엘치베이의 국내외 정책 실패로 혼란 가중
1993.6	전쟁 와중에 후세이노프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엘치베이는 헤이다르 알리에프에게 도움을 요청, 알리에프는 동년 10월 단독 출마한 대선에서 98.9% 지지로 대통령 당선. 헤이다르 알리에프는 집권 이후 후세이노프를 비롯한 반대세력들을 제거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서방의 석유 메이저와 석유/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 성장의 토대 마련
2003.10	헤이다르 알리에프의 아들인 일함 알리에프가 집권 - 아버지 정부의 국가발전 주요 정책을 그대로 계승
2003.12	헤이다르 알리에프 사망
2005.11	총선에서 일부 선거부정 논란이 있었으나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신아제르바이잔당(YAP)이 승리
2008.10	대선에서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재선에 성공
2009. 3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알리에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 토대 마련
2010.11	총선에서 신아제르바이잔당(YAP) 압승 - YAP 72석, 친여 무소속41석, 군소정당 12석 차지
2013.10.9	대선에서 80% 이상의 득표율로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삼선에 성공

나. 정치 체제

- 정체: 대통령 중심제
- 정부 주요 인사
 - 대통령: Ilham Aliyev
 - 총리: Artur Rasizade
 - 부총리(3인): Elchin Afandiyev, Ali Hasanov, Abid Sharifov

- 주요 장관
 - 비상사태장관: Kammalladin Heydarov
 - 농업장관: Heydar Asadov
 - 외교장관: Elmar Mammadyarov
 - 국방장관: Zakir Hasanov
 - 통신정보기술장: Ali Abbasov
 - 경제개발장관: Shahin Mustafayev
 - 재무장관: Samir Sharifov

- 의회: 단원제(National Assembly)
 - 의석: 125석(지역구)
 - 국회의장: 아사도프(Ogtay Asadov)
 - 여당: 신아제르바이잔당
 - 야당: Motherland Party, Umid Party, Civil Unity Party 등

다. 행정권(최신 이슈)

2013.10월 알리에프 대통령은 득표율 85%로 3기 연임에 성공했다.

선거 직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타나 줄루에타 선거감시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선은 유세에서 투표, 개표에 이르기까지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야권 대표도 부정선거라고 반발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졌다며 부정 선거 주장을 반박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식 발표문에서 "정부와 의회가 초청해 파견된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럽의회, 유럽평의회의원연맹, 독립국가연합, 이슬람협력기구, 흑해경제협력체, 아시아정당국제회의 등의 국제 참관인 1천300명 등 5만3천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 과정을 지켜보며 장·단기적으로 선거를 감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비판한 선거감시단체 대표를 체포하기도 하였다. 수도 바쿠에 있는 선거감시단체 EMDS는 대선 과정에서 '몽치표'가 발견되는 등 광범위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 향후 정치사회 전망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4년 기준 880불에 불과한 1인당 GDP를 2013년 7,819달러로 증대시키는 등 빈곤문제 해결을 정책추진에 힘을 쏟고 있으나, 심각한 소득불균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부정부패 또한 지속되고 있다.

사회불만 요인은 많으나 정부의 언론통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거의 표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국내정세는 안정되어 있으나 EU 및 미국 등으로부터 인권 및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야당과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소규모 반정부 소요사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언론통제, 그리고 나고르노-카라바흐 해결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반정부 시위가 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나, 만연된 부정부패는 장기적으로 정국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일머니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국민 생활 수준 향상(빈곤층 축소)도 더디어질 전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사회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외교 수립 및 대사관 개설

연도	주요 사항
1992.3.23	외교관계 수립
2006.03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1인공관) 개설(류광철 대사 대리)
2006.12	류광철 주아제르바이잔 특명전권대사 임명
2007.03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 개설(Rovshan Jamshidov 대사)
2009.12	제2대 이지하 대사 부임
2012.06	한-아제르바이잔 수교 20주년
2012.09	제3대 최석인대사 부임

자료원: 외교통상부

나. 주요인사 교류

- 2005. 11: 맘마디아로프 외교장관 방한
- 2006. 5: 노무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
- 2006. 8: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2006. 10: 알리에프 산업에너지부 장관 방한
- 2006. 11: 맘마도프 교통부 장관 방한
- 2007. 4: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6개 부처 장관 수행)
- 2007. 6: 헤이다로프 비상사태부 장관 방한
- 2007. 9: 아사도프 국회의장 방한
- 2008. 5: 한승수 국무총리 아제르바이잔 방문
- 2009. 5: 바기로프 환경천연자원부장관 방한
- 2010. 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2010. 12: 엘마르 맘마디아로프 외무부 장관 방한
- 2011. 4: 헤이다로프 비상사태부 장관 방한
- 2011.10: 최태원 SK회장 방문
- 2012. 1: 박희태 국회의장 등 방문
- 2012. 4: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 2013. 5: 박병석 국회부의장 방문

다. 주요 협정·약정 체결현황

체결 협정	체결 약정
2006. 5월: 문화협정 2006.5월: 항공협정 2007.4월: 투자보장협정 2008.5월: 이중과세방지협정, 외교관·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2006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7년 4월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경제 분야별 약 30여 개 협력 약정 체결

라.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은 약 230명(2014. 8월 기준)이며, 주로 한국어 교사, 상사원(삼성, SK C&C, 희림, 울트라건설 등), 유학생, 선교사, 정부파견 공관원 등이다. 과거 소수의 고려인이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을 떠났다. 2005년 1월에 한인회가 창립되었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4					
국가 일반	인구	백만명	9.4					
	면적	km ²	86,600					
	한반도 대비면적	배	2/5					
지표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9.3	5.0	0.1	2.2	5.8	N/A
	1인당 GDP	US \$	4,977	5,879	7,119	7,321	7,819	N/A
	명목 GDP	US \$ b	44.3	52.9	64.8	67.4	73.5	N/A
	정부부채/GDP	%	9.4	7.9	7.7	5.1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0.6	7.8	6.6	-0.3	3.7	N/A
	민간소비증가율	%	6.6	-15.3	21.7	2.3	12.0	6.0
	종합주가지수		-	-	-	-	-	-
	실업률	%	5.7	5.6	5.4	5.2	4.7	5.4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 b	210.5	263.7	343.9	323.7	317.8	N/A
	수입실적	US \$	65.1	67.4	101.6	101.9	111.6	N/A
	대외의존도	%	62.3	62.8	68.9	56.3	58.4	N/A
	무역수지	US \$ b	14.8	19.7	24.3	22.2	20.6	N/A
	총투자증가율	%	-8.9	4.2	12.0	2.3	9.0	N/A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US \$	N/A	N/A	N/A	N/A	N/A	N/A
	총외채	US \$ m	4,755	7,094	8,369	9,712	10,636	N/A
	외환보유고	US \$ m	5,364	6,409	10,274	11,277	15,014	16,705
	이자율	%	20.0	20.8	19.0	19.0	N/A	N/A
	환율	US \$	0.8	0.8	0.78	0.79	0.785	0.785

주: 작성기준일 2014.8

자료: EIU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13년 경제동향

□ 실질 GDP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경기가 활발하여 성장율이 4년만에 가장 높은 5.8%에 달하였다(2012년 2.2%).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석유생산량은 ACG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2년 대비 감소하였다. 참고로, Azeri-Chirag-Guneshli 유전은 아제르바이잔 석유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유전이다.

반면 비석유 분야는 정부지출 확대 영향으로 10%가 넘는 성장(비석유 분야 GDP 비중 53%)을 기록하였다.

□ (물가)

아제르바이잔의 물가는 2012년 0.3% 하락하였으나 2013년에는 3.7% 상승했다.

아제르바이잔 주요 경제 지표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9.4%	4.9%	0.1%	2.2%	5.8%
물가상승률	0.7%	7.9%	5.6%	-0.3%	3.7%
인 구	8.9백만명	9.0백만명	9.1백만명	9.2백만명	9.4백만명

□ 무역수지

2013년 무역수지는 206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다. 그 중, 수출은 \$3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다.

아제르바이잔 무역수지 추이

(단위: US\$ 억)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액	211	264	344	324	318
수입액	65	67	102	102	112
무역수지	148	197	243	222	206

□ 외환 보유고

외환보유고는 4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다. 석유기금(SOFAZ)이 356억 달러, 중앙은행 보유 외환이 142억 달러로, 전략적 외환보유고 총액은 498억 달러이며 GDP의 70% 수준이다. 반면, 외채는 10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년 기준

나. 경제 전망

1) 2014년 경제 전망

□ 실질 GDP: 4% 대 성장 전망

- 월드뱅크 4.2%, EBRD 4%, 아제르바이잔 정부 5.3% 성장 전망
- 월드뱅크 전망: (2014년) 4.2% → (2015년) 3.7% → (2016년) 3.6%

□ 물가: 4~5%대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5.7%, EIU는 2.0% 상승 전망
- 아제르바이잔 정부 전망: (2014년) 5.7% → (2015년) 5.2% → (2016년) 4%

2) 중기(2014~2017년) 경제 전망(EIU)

□ 실질 GDP)

향후 3년간 GDP는 평균 2.9% 성장 전망하고 있다. 석유 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Chirag 유전 생산이 개시되나, 전반적 생산량 수준은 정체 예상
- 2017년 말~2018년 초 샤 데니즈 가스전 2단계 생산(연 160억m³ 추가 생산)이 개시되면 경기가 다소 부양될 것으로 예상

□ 물가

2012년 물가는 평균 4.7% 상승이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환 유입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수요 및 통화 공급의 낮은 증가율로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경제정책 기조

1) 주요 증장기 경쟁력 강화 정책

□ 경제 구조 개선 및 비 석유 산업 육성

- 2015년 석유화학단지(170억불 규모) 건설
 - 가라다흐지역에 가스처리시설·정유시설·석유화학시설·발전소로 구성된 석유화학 단지 조성 추진
- 신재생에너지 개발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전략 마련 및 시행 추진
- 특별 경제 구역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숨가이트 지역 석유화학 제품 생산 단지, 발라카니 지역 생활쓰레기 재처리 시설, 간자 알루미늄 공장 등 설립 등
 - 비료공장(숨가이트), 조선소, 시멘트 공장 건설
- 관광 산업 육성 및 농업 발전

□ 교통 인프라 확충

- Alat 지역에 신항만 건설(2015년 건설 완료 추진)
- Baku-Boyuk Kasik 구간, Baku-Yalama 구간 철도 개량 및 현대화, Baku-Tbilisi-Kars 철도 연결·운영(2014년 목표), 차량 현대화 추진
- 동-서 및 남-북 구간 도로 확충, 주요 도시에 ITS 시스템 구축
- 헤이다르 알리에브 국제공항 신 터미널 구축, 주요 국제공항 개량 및 항공기 증대
- 지하철 노선 확대 및 지하철 차량 현대화

□ ICT 산업 발전

- 통신위성 발사(2013년) 및 저궤도 위성 발사 추진
- 초고속통신망 구축 확대 및 Trans-Eurasian Information Super Highway 프로젝트 추진

2) 통화정책

2013년 마나트 대달러 환율은 약 Manat0.79: 1 USD를 유지하였으며, 2014 ~ 2017년 동안에도 안정적인 수준 유지 전망하고 있다.

3. 주요산업동향

가. 산업개관

□ 석유/가스 산업

석유/가스 산업은 GDP의 45-50%,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석유/가스 산업은 2005년 BTC 파이프라인 개통 및 BP 등 국제석유메이저의 투자 증가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2005년 22.2백만톤, 2006년 32.3백만톤, 2007년 42.6백만톤, 2008년 44.5백만톤, 2009년 50.4백만톤, 2010년 50.8백만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45백만톤, 2012년에는 43백만톤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41.1백만톤에 그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기타산업

석유/가스 산업의 발전에 비해 다른 분야는 투자부진 등으로 크게 낙후되었다.

그 중, 농업부문은 가장 큰 고용창출 부문이자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이나, 석유수출로 인한 대규모 달러 유입에 기인하는 마나트화 평가절상으로 농산물가격이 높아지고 수입농산물이 유입됨에 따라 부진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부문은 빠른 성장세 시현(2013년말 현재 휴대폰 가입자는 10.1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중이며, 건설 부문 또한 시장규모가 2005년 19억달러에서 2013년 70억달러로 확대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 석유/가스 산업

□ 석유/가스 개발 역사

- 미국보다 11년 앞선 1848년 바쿠에서 세계 최초로 시추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9세기 후반 세계 석유생산의 중심으로 부상, 세계 석유공급의 절반을 담당하였다.
- Shell/Rothschild나 Nobel형제 등 외국 석유회사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으나 1917년 제정 러시아의 몰락과 소련의 출범으로 74년간 외국인 투자 차단
-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군의 원유 수요 70%를 담당했던 바쿠는 히틀러의 첫 번째 공격 목표로서 히틀러는 기필코 바쿠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바쿠 유전지대는 계속 소련의 지배하에 놓임
- 1950년대 러시아의 서시베리아 유전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소련 최대의 유전지역으로

소련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수행

- 1991년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카스피해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
- 1994.9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BP(영)·Statoil(노)·ExxonMobil(미) 및 SOCAR(아제르바이잔) 등이 설립한 합작벤처 AIOC와 Azeri-Chirag-Gunashli(ACG) 유전지대에 대해 CIS국가 중 최초의 생산물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 동 계약을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석유산업은 크게 발전
-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5개국 기업들과 27개의 생산물분배협정을 체결, 세계의 주요 석유 메이저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진출

□ 석유/가스 자원 보유량

-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70억 배럴로 세계매장량의 0.4%,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조3,000억㎥로 세계매장량의 0.6%임.
- BP, IEA 등은 원유 확인 매장량을 70억 배럴로 추산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확인 매장량이 160억 배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석유/가스 생산현황

- 석유 생산은 독립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가 Azeri-Chirag-Gunashli(ACG) 유전 개발을 계기로 199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새로운 해저 유전 개발과 기존 유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석유 생산이 더욱 증가.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부터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석유 생산 추이(백만톤): (2004) 15.5 → (2005) 22.2 → (2006) 32.3 → (2007) 42.6 → (2008) 44.5 → (2009) 50.4 → (2010) 50.8 → (2011) 45.0 → (2012) 42.9 → (2013) 41.1
- 천연가스는 2009년 16.3억 입방미터, 2010년 26.4억입방미터, 2011년 26.0억 입방미터, 2012년 26.9억 입방미터 생산

□ 석유/가스 주요 개발 프로젝트

- 아제리-쉬라그-구나쉬리(Azeri-Chirag-Gunashli: ACG) 프로젝트
- 확인 매장량이 54억배럴로 아제르바이잔 전체 매장량의 70%를 차지
- 1994.9 英 BP社를 사업운영자로 한 국제컨소시엄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AIOC)와 아제르바이잔정부간 계약체결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AIOC 컨소시엄 지분 소유사는 BP (35.78 %), Socar (11.65 %), Chevron (11.27 %), Inpex (10.96 %), Statoil (8.56 %), ExxonMobil (8 %), TPAO (6.75 %), Itochu (4.3 %), ONGC (2.72 %)

- 1997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Chirag-1 유전은 1단계, Azeri 유전은 2단계, Gunashli 부분은 3단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부터 전 유전에서 생산 중
- ACG 유전의 2012년 생산량은 68만배럴/일로 2011년 대비 7%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도 감소. 그러나 2014년에는 신규 플랫폼 설치로 다소 증가 예상
-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에프 대통령은 2012년 10월 생산량 감소는 BP가 이끄는 국제컨소시엄의 심각한 실수에 기인한다고 강력히 비난. 대통령은 ACG 유전의 수익 배분이 2008년 중반에 종전 50% : 50%에서 25% : 75%(컨소시엄: 아제르바이잔)로 전환된 이후, 생산 예측량 대비 실제 생산량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은 수익을 덜 받게되었다고 비난
- 샤흐데니즈(Shah-Deniz) 가스전 프로젝트
- 샤흐데니즈 가스전은 매장량 1.2조m³에 달하는 세계 유수의 대형 가스전 중의 하나임
- 1996.6 PSA 체결 이후, Shah-Deniz 1단계 개발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동 가스전 개발로 아제르바이잔은 가스 수입국에서 가스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음. 동 가스전 개발 및 운영에 BP(운영사) 25.5%, Statoil 25.5%, SOCAR 10%, Lukoil(러시아) 10%, Total(프랑스) 10%, NIOC(이란) 10%, TPAO 9%로 각각 지분을 가지고 참여 중
- Shah-Deniz 2단계 개발 시, 연간 160억m³의 가스가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며, 이를 터키, 유럽 등으로 수출할 예정임

다. 석유/가스 분야 주요국 진출현황

- (영국)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개발에서 주도적 역할 담당
 - BP: ACG(34.1%)/Shah-Deniz(25%)/Araz-Alov-Sharg(15%)/Inam(25%) 등 4개 프로젝트 사업운영자로 2005년 ACG에 27억 달러, Shah-Deniz에 13억 달러, BTC 송유관에 12.3억 달러 투자
 - Caspian Energy Group: 내륙 Shirvanoil 유전(85%) 사업운영자
- (미국) 영국에 이어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부진
 - ExxonMobil: 1995-2003년간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 Araz-Alov-Sharg 지분 15%, ACG 지분 8%를 보유
 - 기타: Devon Energy는 ACG(5.6%), Unocal은 ACG(10.2%), Conoco는 Zafar-Mashar(20%)에 투자, Chevron은 Absheron(30%)의 사업운영자였으나 탐사 및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유전발견에 실패하여 2007.1월 계약 연장 포기 후 철수
- (노르웨이) 영국·미국에 이은 3번째 투자국으로 Statoil이 1992-2003년간 총 12.3억 달러를 투자했을 뿐 아니라 Shah-Deniz(25.5%)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중 하나로 ACG(8.6%)/Araz-Alov-Sharg(15%)/BTC 송유관(8.71%)/SCP 가스관(25.5%)에도 참여

- (터키) 국영 TPAO는 BP, ExxonMobil, Statoil에 이은 4번째 투자자로 1994-2005년간 20억 달러를 투자, ACG(6.8%)/Shah-Deniz(9%)/Araz-Alov-Sharg(10%)/Kurdashi-Araz-Kirgan Daniz(5%) 등 4개 프로젝트와 BTC 송유관(6.53%)/ SCP 가스관(9%)에 출자
- (러시아) 서방에 비해 아제르바이잔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으로 Lukoil사는 Yalama 프로젝트(80%)의 1차 탐사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ACG 지분 10%를 2.45억 달러에 인수해 참여
- (일본) Itochu가 ACG에 3.9%, Mitsui가 Kurdashi-Araz-Kirgan Daniz에 15% 투자하였으며, IAOC 컨소시엄(Japex/Inpex/Teikoku/Itochu 참여)이 Atashgah 프로젝트에 사업운영자(지분 50%)로 참여하였으나 개발에 실패하고 2003년 철수
- (중국) 주로 내륙 유전 개발에 참여.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Gobustan(62.8%)/Kursangi-Garabagli(50%)에 출자하고 있으며 Muradkhanli-Jafarli-Zardab에는 영 Ramco 지분을 인수하여 참여

라.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OGPC)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영석유공사 (SOCAR)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OGPC(가스처리, 정유소, 석유화학단지)라고 불린다. 2014년말 또는 2015년초 착공되어 2022년경에 완공될 예정이며, OGPC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있다.

- 가스처리 플랜트(GPP: Gas Processing Plant)
- 정유소(Oil refinery that includes, inter alia, reformer, hydrocracker and FCCO unit: REF)
- 석유화학 단지(Petrochemical plant that includes a steam cracker and Polyethylene/ Polypropylene units: PETR)
- 상기 시설 가동을 위한 발전소(250MW) 및 기타 유틸리티

OGPC는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며, GPP(가스처리플랜트)는 1단계(2015-2016년)에서 건설되며, 정유소는 2단계, 석유화학단지는 3단계에서 건설될 예정이다.

OGPC 건설 비용은 약 170억 달러로 이중 국영석유공사(SOCAR)에서 30~40%를 충당하고 나머지 60~70%는 해외 차관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프랑스 시중은행 "Societe Generale"이 주관사가 되어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 라이선싱은 엔지니어링 회사인 FLOUR를 통하여 도입 협상 중이다.

2013년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조직된 정부위원회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작업 중으로, 동안에 대해 대통령이 승인하면 OGPC 최종 조건들이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8월까지 발표된 최근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 OGPC 프로젝트의 블록별 개요

- 가스 처리 플랜트(GPP: Gas Processing Plant)
 - GPP의 생산능력은 연간 100억 입방 미터(10bcm). 불순물이나 해로운 성분(CO₂ 등)을 정화한 C1(메탄) 가스를 내수 및 수출을 목적으로 가공함. 가스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Hydrocarbon C₂~C₄(에탄, 프로판, 부탄)은 석유화학 단지의 원료로 공급됨.
- 정유소
 - 정유소에서는 카스피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처리함.
 - 정유소의 원유 증류량은 연간 10백만 톤(10mta)으로 주로 가솔린, 디젤, 제트 연료 등을 생산. 정유소는 20개 이상의 처리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대기 및 진공 증류 장치(CDU/VDU)
 - 수소화 분해(HCU)
 - 연속 접촉 개질(CCR)
 - 잔여 유체의 접촉 분해(RFCC)
 - 연료수소화 처리
 - 잔여물의 용매(Solvent Deasphaltization of Residue)
 - Light Naphtha Isomerization(경유 이성질화)
 - 정유소는 LPG, A-95, A-98 가솔린, JET A-1연료, 디젤 연료, 베이스 오일, 아스팔트 등을 생산함. 생산물의 일부는 수출되며 또 석유화학 단지에 원료로 공급됨
- 석유화학 단지(Petrochemical Plant)
 - 석유화학 단지는 가스처리플랜트와 정유소로부터 공급된 재료를 반제품(칩 chips, 미립자 granule 또는 가루 powder)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생산설비를 포함함
 - Ethylene-propylene pyrolysis unit(steam craker)
 - Linear low density/high-density polyethylene(LLDPE/HDPE) unit (gas phase)
 - High-density polyethylene(HDPE) unit (slurry -based)
 - Polypropylene unit(PP)
 - Butene-1 unit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FTA 체결국	체결일
1	러시아	1992. 09. 30
2	우크라이나	1995. 07. 28
3	그루지야	1996. 03. 08
4	투르크메니스탄	1996. 03. 18
5	우즈베키스탄	1996. 05. 27
6	카자흐스탄	1997. 06. 10
7	타지키스탄	1997. 08. 13
8	키르기즈스탄	2004. 01. 12
9	백러시아	2004. 03. 31

자료원: 아제르바이잔 외무부

이 외에 아제르바이잔은 1999년 EU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아제르바이잔의 법체계를 EU 법체계와 합치시키고, 지적재산권, 투자자산, 사유재산 보호, 아제르바이잔을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으로 대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아제르바이잔은 EU, 일본,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우대를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장기적으로는 WTO에도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나(1997.6월에 WTO 가입협상을 신청) 현재 가입을 위한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소관 분야의 독점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WTO 가입은 원치 않고 있다. 주요 산업분야 중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분야는 이동통신을 제외하면 매우 드문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과거 구소련공화국들 사이에서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는 “유라시아 연합(또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에의 참가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수출품목이 석유/가스뿐으로 대부분 서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다가 수입 역시 터키 등 구소련공화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아제르바이잔의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급락으로 2011년 172억 달러에서 2012년 149억 달러로 떨어졌으며, 원유/가스 생산 축소로 2013년에는 123억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생산량 축소에다가 유가 하락까지 겹쳐 105억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5~17년 기간 중 경상수지 흑자는 원유생산량 축소 및 유가하락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2014년 105억 달러, 2016년 91억 달러, 2017년에는 80억 달러 등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EIU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 Shah Deniz 가스전 개발이 완성됨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가 2018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국가별 수출입 현황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수출국은 이탈리아로 전체 수출규모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아제르바이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수출국은 인도로서, 전체 수출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프랑스가 7.4%로 제3위를 점하고 있다.

2013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국가 현황

순위	국명	교역금액(백만 USD)	비중(%)
1	이탈리아	5,574	23.2
2	인도	1,890	7.9
3	프랑스	1,775	7.4
4	인도네시아	1,757	7.4
5	이스라엘	1,666	7.0
6	미국	1,600	6.7
7	독일	964	4.0
8	러시아	938	3.9

자료원: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아제르바이잔 최대 수입국은 터키로 전체 수입규모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러시아가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이후 터키가 1위로 올라섰는데, 터키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터키의 비중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수입국은 러시아로서 전체 수출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독일이 8.0%로 제3위를 점하고 있다.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항공기 및 관련 제품이다

2013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입국가 현황

순위	국명	교역금액(백만 USD)	비중(%)
1	터키	1,518	15.7
2	러시아	1,368	14.2
3	독일	779	8.0
4	미국	714	7.4
5	중국	631	6.5
6	우크라이나	539	5.5
7	영국	496	5.1
8	카자흐스탄	340	3.5

자료원: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다. 품목별 수출입 현황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수입품목은 석유.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기계류 및 장비이며 그 다음으로 큰 수입품목은 식료품(주로 가공식품, 음료, 담배)가 있다.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2013)

구분	품목명	비중(%)
수입	기계류 및 장비	33.1
	운송수단	19.2
	식료품	14.9
	금속제품	13.8
	기타	19.0
	계	100
수출	석유제품	93.9
	식료품	3.2
	금속제품	0.9
	플라스틱	0.5
	기타	1.5
	계	100

자료원: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아제르바이잔 교역현황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2008년 255백만불에 달했던 한국의 대아제르바이잔 수출은 2009년 150백만불로 급감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SK C&C에서 추진하던 바쿠 ITS(지능형교통망시스템)사업과 교포기업인 FOU YOU에서 시공하던 축구장 리노베이션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2014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소폭의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수입은 2007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는 원유나 가스를 제외하고는 수입할만한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아제르바이잔 주요수출품목은 승용차, 칼라TV,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철구조물, 에어컨, 자동차부품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아제르바이잔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3	2014
수출	백만달러	19	32	47	130	255	150	184	217	282	308	145
수입	백만달러	1	0	0	316	12	9	0	0	0	0	0
상품수지	백만달러	18	32	47	-185	243	141	184	217	282	308	145
수출 증가율	%	74.4	68.6	46.9	175.2	95.5	-41.3	23.1	17.9	30.0	9.4	-4.7
수출국 순위	순위	124	114	115	95	85	92	94	95	89	84	83
수입국 순위	순위	155	187	212	57	116	121	196	183	198	225	220

주: 2014년은 상반기(1-6월)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대아제르바이잔 수입은 2007년 원유수입으로 한 해 급증한 이래 계속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대아제르바이잔 주요수출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3		2014. 1-6월	
		금액(US\$천)	증가율(%)	금액(US\$천)	증가율(%)
	총계	308,444	9.4	145,300	-4.7
1	승용차	171,093	2.9	87,194	8.7
2	칼라TV	8,432	11,200.5	9,102	2,996.9
3	화물자동차	19,467	5.7	6,420	-48.1
4	합성수지	21,497	9.2	5,982	-40.9
5	철구조물	11,547	456.9	3,292	176.2
6	에어컨	5,265	-10.6	3,058	-39.1
7	자동차부품	6,080	16.0	2,782	24.5
8	알루미늄조각공품	1	-	2,696	5,735,691
9	밸브	12,530	470.8	2,307	-77.8
10	경보신호기	1,101	3,672.1	2,111	3,147.2
11	의약품	1,457	16.2	1,582	892.7
12	기타기계류부품	36	2285	1,337	9,816.2
13	건설중장비	8,285	-43.5	1,043	-82.4
14	의료용전자기기	4,876	168.8	1,018	-75.8
15	X선및방사선기기	1,814	231.6	961	-38.7
16	기타플라스틱제품	838	-74.0	889	72.0
17	기타철강금속제품	1,268	49784.8	722	-37.6
18	섬유기계	571	122.3	664	213.6
19	기타전자응용기기	289	-17.0	652	1,818.5
20	기타정밀화학원료	63	-96.2	588	-
21	지가공기계	158	-41.5	570	-
22	접시세척기	730	-	552	60.8
23	냉장고	2,247	5.0	512	-56.1
24	TV카메라	1,116	49.0	446	-20.5
25	무선전화기	1,065	-63.1	434	-38.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제한 또는 허가 품목

아래 품목은 수출입 시 필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기 및 군용장비, 폭발물, 무기에 대한 과학지식 및 기술, 우라늄 방사물질 및 핵 기술, 마약 및 향정신제, 혈액 및 혈액성분, 야생동물 및 식물, 자원에 대한 정보, 고미술품, 일부 과학 보고서나 발명품, 의학 시설, 살충제, 동물용 약제,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출,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자원 수출 등
- 에틸 알코올이나 술, 담배는 일정한 수입쿼터가 있으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동물성 식품의 수입은 제한되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State Veterinary Committee(SV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대한 위성 안테나 등의 통신 장비는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al Technologi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인이 아제르바이잔 역내로 수입할 수 없는 품목 또는 국제우편서비스로 수취가 금지된 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개인무기,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 폭발물, 군장비
- 방사성 물질
- 마약, 환각제 및 관련 장비
- 음란, 폭력 및 테러 선동물
- 마약, 환각제, 폭발물, 독극물 제조 원료

나. 비관세 무역장벽

빈번히 바뀌는 통관 규정,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세관원의 웃돈 요구(관세나 부가세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의 웃돈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일반적), 까다로운 절차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는 없다.

아제르바이잔은 제조업이 없는 국가로서 수입규제는 없지만 부정부패가 심각하며, 특히 세관은 부패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뒷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품에 관계 없이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5,000달러 정도의 뒷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관이 무한정 보류된다.

5. 관세제도

가. 개괄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한해 우선 신고된 가치의 15%, 10%, 5%, 혹은 0.5%의 증가세(ad valorem tax)가 붙는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종량세(specific tax)나 혹은 증가세, 종량세 두 가지 관세를 합한 Combined Tax가 붙는 경우도 있다. 종량세나 Combined Tax는 증가세와 같이 15% 관세율을 최고치로 두고 있다.

최고 관세율이 15%이나 세관의 부패가 심하며, 체감 관세율이 40%에 넘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뒷돈을 요구 받기 때문에 자국민을 통하여 통관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이 직접 통관을 시도하는 경우 트집을 잡아 통관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지인을 세관에 동행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뒷돈은 물품에 관계 없이 컨테이너 단위로 요구(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1개당 약 15,000달러)하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나가는 제품은 물품가격에 비해 뒷돈 비율이 매우 높다.

통관수수료는 모든 수입/수출에 대해서 AZN550(약 7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수입된 품목은 관세를 내기 전에 최고 3년까지 세관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다. 물품이 창고를 떠나는 순간 해당하는 모든 관세를 내야하며 또한 보관료가 청구된다. 과거에 상의한 바가 없으면 보관료를 매우 높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세관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보관료에 대해 사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아래 상품을 포함한 일부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받는다.

- 외교용품
-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젝트에 쓰일 용품
- 임시 수입품
- 해외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일하는 외국인의 개인용품

아제르바이잔 관세율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 <http://www.az-customs.net/en/zakon.htm>

나. 과세 종류

수입관세율	0~15%(과중평균관세율: 5.8%)
기타 과세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0.08~12.5%(담배, 술, 휘발유, 차 수입 시) - 차: 0.15AZM/cc(2,000cc미만)1AZM/cc+300AZM(2,000~3,000cc) - 부가세: 18% - 통관수수료: 0.15(모든 수출입 거래 시 부과)
수출관세	없음(단, 일부 금속 및 금속제품 제외)

자료원: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12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일반적으로 구 소련 러시아연방 표준위원회 (GOST)의 SNIP Code를 따르나 최근 들어 점차 유럽 표준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나 ADB 등 해외 개발은행 원조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International 표준이 사용된다.

많은 경우 러시아 SNIP 및 국제적인 표준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사용되는데 이에 따라 종종 해석의 혼란이나 혼선이 발생한다.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된 법률이 현재 Copyright Law,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Law on Patents,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는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는 없으나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담당하고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Eurasian Patent Convention (EAPC) 등의 국제 회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는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다.

나.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권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상표는 10년마다 재등록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소유한 특허 및 라이선스를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 시 필히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 보호기간

구분	보호기간	비고
특허	20년	새롭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발명품
실용신안	10년	새롭고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개량기술
산업디자인	10년	외부 모양을 결정하는 예술적이나 구조상의 디자인

다. 저작권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수퍼 301조 watch-list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약속하고 WIPO 인터넷 조약 및 WIPO 저작권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덕분이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별도로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계몽 등은 일반적인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불법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바쿠 시내 중심에 있는 사힐(Sahil) 역(驛) 주변 상가에 중국의 짝퉁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불법위조 상품이 상당수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고 있으나 세관당국과 업자간 담합 또는 세관당국의 지재권 위반 상품 단속능력의 부족에 따라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고 있다.

마. 법적 절차(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s)의 침해는 1심 법원은 특허청 심판 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게 담당한다. 2심 법원으로는 일반인 및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법원과(District Court, City Court, Supreme Court, 3 단계로 구성) 법인만 상대하는 Economic Court가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제르바이잔 세관(State Customs Committee)과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수출입 신고

□ 화물 수입 시 제출서류

- 서명된 수입 계약서(Import Contract). 필히 계약 번호도 적혀 있어야 함.
- 수입 신고서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입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상업 영수증(Sales Invoice)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 화물의 품질 증명서

□ 화물 수출 시 제출서류

-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서
- State Statistics Committee상의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 번호(Legal Entity Code)
- 계약서 사본(필히 계약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C/O)
- 공인된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불 증명서류, 또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출 화물의 영수증(Sales Invoice)과 수출 화물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신고서

나. 임시수입(Temporary Import) 및 재수출 제도

아제르바이잔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온 뒤 제품 제조 후 일정 시간 안에 재수출을 할 경우에는 Draw-back scheme을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연한 절차가 없어 일반 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세관에서 제조 및 재수출 시기를 정하며(보통 수입 후 2년) 최소한 일정량 이상을 제조해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물품을 임시수입 할 경우 반드시 먼저 세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통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했을 때와 재수출할 때 물품의 일반적인 마모 및 손실 외에는 원상 그대로 수출되어야 한다.

임시수입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관세를 지불하지만 재수출 후 같은 Draw-back scheme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재수출 때와 같이 임시수입 시에도 명확한 절차가 없어 돌려받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통관보류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관세공무원이 통관 시 예외 없이 뒷돈을 요구한다. 세관검사는 매우 까다로우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트집을 잡아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 현지 수입업자에 따르면 통상 20피트 컨테이너 1개 물량 수입 시 수입물품 가격에 관계없이 1만 5천 달러 지불을 요구 받는다. 한편, 통관대행업의 경우 관세위원회의 영업허가가 필요하나 현재 소수의 업체만이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란 반다르 압바스 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하는 방법과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흑해 그루지야 항구를 통해 들여오는 방법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물류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이란 반다르 압바스 항을 통한 물류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끔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2013년 9월 당시 UN의 대이란 경제제재조치로 동 루트는 현재 폐쇄 된적이 있었음). 한국에서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항공수출의 경우 두바이, 이스탄불, 모스크바, 타슈켄트, 우르무치 등을 경유하여야 한다.

9. 수출유망품목

가. 한국기업 수출유망품목

대아제르바이잔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세부품목 및 선정사유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용 의료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초음파 검사 장비, ECG(심전계), 엑스레이 및 유사 진단 장비 - 치과 의자, 치과 장비 - 수술 장비, 인공호흡 장비 - 의료 소모품(test glass, 카테테르, 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 최근 수년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치과 및 특수수술(예: 레이저 눈수술) 전문 클리닉이 증가 추세
전기설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선관련 품목 - 스위치, 스위치 보드 -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수년간 건축이 활발한 편으로 전기 설비 등 건축관련 품목 수요가 많음. 또한 중소기업시설 건설도 활발하여 전기관련설비 수요 증가
농산물 및 식품 가공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및 생선 가공 시설 - 온실설비 - 점적관수 시스템 - 통조림 제조설비 - 제빵 장비 - 낙농업 장비 - 식물성 동물성 기름 생산 설비 - 제과 설비 - bottling 설비 - 포장/패킹 설비 - 냉장 장비 - 슈퍼마켓 장비 - 저온 저장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 농업은 석유가스를 제외하면 아제르바이잔의 중심산업임. 아제르바이잔은 농업 및 농업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농업의 성장이 빠르며 농업관련 설비의 수요도 많음

품목명	세부품목 및 선정사유
건축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nitary ware(변기 등) - 실내 장식용품(벽지 등) - 창호 - 타일, 건축용 stone - 마루 - 페인트 - 건축 공구
기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 - 플랜지 피팅
컴퓨터 부속과 부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스크톱 및 노트북 PC - 모니터 - 하드드라이브 - 관련 부품 및 부속품
가전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기 세척기 - 피복 세탁기 - 진공 청소기 - 오븐 - 냉장고

10. 시장특성

가. 시장 잠재력

- 풍부한 원유개발 잠재력
 - BP 등 석유 메이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매장량을 약 70억 배럴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
- 낙후된 인프라 확충 절실
 - 대부분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인프라 부분 진출 잠재력 풍부
- 제조업 기반 취약에 따른 수출 틈새시장 형성
 - 일반 공산품, 식품 가공 등 기초 제조업 분야 취약
 - 향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에 따라 제조업 기반 및 자본재 수입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나. 시장 특성

-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
 - 산유국으로 석유가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90% 이상을 차지
 - 국제 유가가 경제 성장과 외환 보유액을 좌우하는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 형성
- 개도국형 산업 구조
 - 고용 인력의 대부분이 농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
 - 대부분 생필품 및 공산품을 터키 및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 산업건설 소요 기계장치는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제조업 기반 취약
 - 주요 제조업은 설탕, 음료, 시멘트, 등이나 규모가 작고 기반이 취약
- 공급자 마켓의 낙후된 경제구조
 - 금융 시스템 낙후로 신용장 개설조차 쉽지 않고 언더밸류 및 밀수가 성행하는 낙후된 경제 구조
 - 국내 제조업 미발달로 일부 식품을 제외한 여타 품목은 수입 의존
 - 재래시장 중심의 소형 유통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열악한 교통 네트워크로 유통 비용이 높은 후진국 형 유통구조 형성

- 정부대기업 중심의 경제활동
 - 자금력이 풍부한 정부 고위 관료 소유기업의 수출입 업무 비중 높고 단일 기업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비 전문화된 시장
 - 고위 관료가 소유한 대기업은 자동차, 기계 등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취급하며 중소형 기업은 고위 관료 대기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틈새시장 위주의 제품을 취급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고위 관료와 커넥션이 없으면 경제활동이나 수입이 어려움.

-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시되는 가격시장
 - 상위 5%가 국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서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구매력이 낮아 저가품 선호
 - 소수의 부유층은 품질이 우수한 고가제품을 선호

- 인근국가에 비해 비즈니스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은 낮음.
 - 이란 등 인근 중동국가와는 달리 기도시간 등 종교적 이유로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뭄.

- 낮은 수입장벽
 - 자국 내 생산되는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없음.
 - 다만 특정분야를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입 역시 독점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동의/허락을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11. 바이어 발굴

가. 개요

규모 있는 바이어는 대부분 정부 고위관료가 소유한 기업들로서 이들은 소관분야 제품(일례로 교통부 장관 소유기업은 교통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경제활동을)을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 기계 등 시장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은 이들 고위관료 소유기업이 취급하며 중소형 기업은 대기업이 취급 하지 않는 틈새시장 위주의 제품을 취급한다.

나. 인쇄 매체를 통한 발굴

코트라 무역자료실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기업체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 Kompass Azerbaijan 2012 등

다. 온라인을 통한 발굴

아제르바이잔에서 작성된 아제르바이잔 기업체 정보 제공 웹사이트는 없지만, Kompass 웹사이트인 <http://kompass.com>에서 아제르바이잔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유료 사이트). 국가별, 업종, 업체별로 검색할 수 있으나 여타국가와는 달리 각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파악할 수는 없다.

라. 각종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협회 명칭	연락처
아제르바이잔 기업가 협회 〈Azerbaijan (Youth) Young Entrepreneurs Association〉	전화: (994 12) 497 09-47 팩스: (994 12) 497-09-51 주소: Ajerbaijan, Baki, AZ1001 Baki Nizami kuc 16
아제르바이잔 리스 협회 〈Azerbaijan Leasing Companies Association (ALCA)〉	전화: (994 12) 449-91-61, 449-85-95 팩스: (994 12) 449-85-65 주소: 9 S. Rustam str., 2th floor, AZ1014, Baku, Azerbaijan

협회 명칭	연락처
아제르바이잔 광고 협회 〈Azerbaijan Advertisers Union〉	전화: (994 12) 494-90-32/495-69-97 팩스: (994 12) 497-40-00 주소: 24, Bakikhanov str, AZ 1022, Baku, Azerbaijan
은행협회 〈Association of Banks〉	전화: (994 12) 597-61-69 (994 12) 497-15-15 주소: AZ 1000, 36, A.Topchubashev str. 1-st floor, Baku,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호텔협회 〈Azerbaijan Hotels Association〉	전화: (994 12) 433-04-77 (994 12) 596-12-55 팩스: (994 12) 433-04-77 주소: S. Mehdiyev kuc. 93 Baki AZ1000 Azerbaijan
컨설팅업체협회 〈Association of Consilting Companies〉	전화: (994 12) 492-20-42 팩스: (994 12) 492-20-42 주소: N. Refibeyli kuc. 4/52 BakiAzerbaijan

마.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전시회는 <http://www.iteca.az/>에서 파악 가능하다. 아제르바이잔 시장개척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나 전시회 참가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내륙 국가로서 전시물품 운송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운송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전시회 참여는 미미하다.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현지 기업인 및 거래 특성

아제르바이잔 기업인들은 자국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늘 거래독점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제품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즈니스 상담 시 보통 가격부터 먼저 물어보는 일도 종종 목격된다. 그리고 보다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무역업자보다는 제조업체와 직거래하기를 선호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중개상들이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이 생긴 듯 하다.

아제르바이잔에는 L/C 거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T/T 거래 비중이 높다. 현지 로컬 은행들의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L/C 거래보다는 T/T 거래가 선호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관세 경감을 목적으로 실제약금액 보다 작게 기재된 다운 계약서를 요구한다.

Agent 문화가 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구입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또한 중간 소개자가 일부의 이익을 챙기는 것 역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지 진출 시, 좋은 파트너를 만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접 문화가 있어 외부에서 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지만, 자신들이 유럽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업미팅 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독점체제 및 부정부패 존재가 존재한다. 경제구조가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의 겸직이 일반적인 정경일치 사회이다. 공공부문 입찰에 있어서는 Under Table Money 없이는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다.

나. 초도 거래 요령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계약 이행이나 약속 준수 개념이 철저하지 않고 과장이 심하기 때문에 초도 거래에서 외상을 준다든지 또는 허황된 말만 믿고 독점권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일은 삼가 해야 한다.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고 권위 의식이 높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므로 다소 허황된 제안을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며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융통성과 참을성이 필요

상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을 경우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지 파트너가 거래에 관심이 없어서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대체로 느긋하기 때문에 매사 업무 처리가 신속하지 않은 편이며, 수 차례 독촉해야 겨우 회신하는 경우도 흔하다. 아제르바이잔의 의사결정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Top-down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부재중이면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무자는 아무런 의사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의사결정권자의 재가를 받기 전까지는 거래 상대방의 최종적인 결정 내용을 들을 수 없다.

한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원단의 경우, 디자인과 색상을 일부 바꾸어 달라든지 하는 식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매우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요구 사항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

라. 협상 기술

아제르바이잔에서 추진하는 투자 사업이든 수주 사업이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의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스스로 일방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타임테이블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제풀에 못 이겨 손해를 보면서까지 스스로 포기하거나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인은 한국인에 비해 느긋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서두를 경우 득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협약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결정권의 중앙집권화로 실무자 단계에서 결정되는 일은 드물다. 비교적 사소한 의사결정도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격이나 대금지불 등 금전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결정하지 못 한다. 협상이 차질을 빚을 때,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개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전시회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3-2014년 개최 예정인 전시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iteca.az/>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큰 전시회는 2014년에는 10.22-25 개최되는 건축자재 전시회(BAKU BUILD)로 매년 2-3개사의 한국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방산물자 수출 성공사례

- 내용: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부 산하 방산공장에 위장막 원단 수출
- 추진경과
 - 2009. 12월: 바쿠무역관에서 아제르바이잔 방산공장 사장을 만나 한국의 위장막 생산업체 소개
 - 2010. 3월: 아제르바이잔 방산공장 사장 방한 및 시찰
 - 2010. 4월: 계약체결
 - 2010. 5월: 계약금 30% 송금
 - 2010. 6월: 선적 및 발송 개시(2011.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분할 선적 및 발송)
 - 2011. 3월: 잔금 70% 송금
- 계약내용
 - 계약금액: USD1,112,200(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공급물품: 위장막 원단
 - 계약물량: 268,000m²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물류상 애로사항

아제르바이잔은 내륙국가로 대양과 접하여 있지 않고 내해인 카스피해에만 접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해야 한다.

해상운송 루트로는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하는 방법과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흑해 그루지야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방법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막대한 물류비용이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이란을 통해서 들어오나, 2013.9월 당시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 항을 이용한 물류는 UN의 대이란 제재조치로 폐쇄된 적이 있었다.

해상운송 시에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당 7,000달러 가량의 물류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직항 항공편은 없어, 항공수출의 경우 두바이, 이스탄불, 모스크바, 타슈켄트, 우르무치 등을 경유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수출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1주일 정도의 운송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비싸다.

비싼 물류비용 이외에도 한국과 아제르바이잔간의 교역액은 연간 3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소액이기 때문에 운송편이 매우 많지 않은 점도 적기 딜리버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나. 통관 절차상의 애로사항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관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통관보류 등의 사례가 빈발하며 관세공무원이 통관 시 예외 없이 웃돈을 요구한다.

세관검사 역시 까다로우며 서류심사 단계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 서류검사 단계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며 물품검사 단계에서도 웃돈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지 수입업자에 따르면 통상 컨테이너 1개 물량 수입 시 수입물품 가격에 관계없이 약 1만 5천불 정도의 뒷돈 지불을 요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통관대행업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관세위원회의 영업허가가 필요하나 현재 소수의 업체만이 허가를 보유하여 통관대행 위탁 시 불편도 많다.

다. 정부조달상의 애로사항

아제르바이잔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며 observer 지위도 획득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조달법은 각 행정기관이 정한 특정한 금액 이상의 입찰일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공개입찰 또는 기타 조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찰평가에 있어 아제르바이잔 국내산 물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자국인을 50% 이상 고용할 경우 5%에서 15%까지의 advantage가 적용되며, 자국기업(local bidder)일 경우에는 국내산 물품사용 또는 내국인 고용이 50%를 초과하는데 대하여 6% 또는 7.5%의 advantage가 별도로 적용된다.

입찰서류 역시 아제르바이잔어가 기본이다.

거의 대부분의 공개입찰은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은 바, 우리업체의 아제르바이잔 정부조달시장 진출 시에는 사전에 관련 행정기관과 충분한 교감을 거치지 않으면 낙찰은 불가능에 가깝다.

라. 기타 애로사항

수입 시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 점도 애로사항이다. 수입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서명이 된 수입 계약서(Import Contract)/ 필히 계약 번호도 적혀 있어야 함, 수입 신고서,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수입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 영수증(Sales Invoice), 원산지 증명서(C/O), 수입 화물의 품질 증명서 등 10종이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외국인 투자 개방성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공식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1994년 이래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서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지만 극심한 관료주의, 부정부패, 허술한 법치제도, 정경 유착된 이해집단의 독점행태는 비 에너지 분야로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였다.

1992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보호법은 국가안보 분야처럼 법으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 활동을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통신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외국인투자를 통제하고 있다. 예컨대,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려면 국영석유회사(SOCAR: 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와 생산물분배협정 (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소유 은행의 비중이 전체 상업은행 시장의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에너지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수불가결한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부(Ministry of Tax) 내에 'One-Stop-Shop'이라는 간소화된 회사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수개월 또는 수 주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랭킹이 크게 개선된 것은 'One-Stop-Shop' 도입에 전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다만 등록 소요시간 단축 이외에 실질적인 투자환경은 전혀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기업(Joint Venture), 자회사(Subsidiary),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등의 형태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동등한(not less favored) 대우를 받으며,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과실송금이 보장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이 입법되면 이전 법에 의해 10년간은 보호받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세법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나. 국유화 및 징발에 대한 보상

외국인 투자가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징발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국민이나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 의회 결의에 따라 해당자산을 국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전염병, 비상사태 발생 시 내각의 결정에 따라 징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화나 징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의해 즉각적인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화나 징발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다. 분쟁 해결

아제르바이잔 분쟁 해결 제도는 대단히 미흡하다. 재산권이나 계약상 권리를 보호 받을 효과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힘이 없고 판사들은 서구 자본주의적인 세법이나 경제법을 잘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다. 상거래 분쟁을 관장하는 경제법원(Economic Court)의 강제 구속력은 미약하며 또한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결과와 일관성도 부족하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간 투자 분쟁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협약,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민사소송법은 외국중재판정이 자국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판정결과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파산법(Bankruptcy law)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유명무실하다.

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의무사항

아제르바이잔에는 오일가스분야 생산물분배협정(PSA) 체결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는 아무런 투자 인센티브도 없다.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향후 재투자자와 고용승계의 의무를 갖게 되나 아제르바이잔 국내로부터 필요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생산물의 일정량을 수출해야 하는 의무는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국민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당국에 신고 후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국인과 같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세 의무를 진다. 30일 이상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ID카드도 취득해야 한다.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대표 및 부대표(deputy)는 노동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마. 자산 소유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모기지법(2005), 토지법(1999), 토지 개혁법(1996), 토지임대차법(1999), 토지시장법(1999) 등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적자나 아제르바이잔 법인(외국 투자기업 포함)은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 매매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차만 할 수 있다.

바. 재산권 보호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자산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동 시스템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많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중반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지원 하에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996년에 저작권법, 1997년에 특허법, 1998년에 상표법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 등 다수의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가저작권 보호청(State Copyright Agency)은 다수의 정부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 반해적행위위원회(Anti-Piracy Commission)를 결성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개선된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보호 되지 않고 있다.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짝퉁 명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팔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사. 규제 제도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규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결여되고 관련 공무원의 부패소지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투명치 못한 정책,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은 관료주의적인 행정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특히 비 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부패법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며 각종 규제 제도, 과세, 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부패 소지가 많다.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은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2007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투명성 재고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 전략(2007~2011)을 채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을 도입하였다. 동 전략은 기존의 반 부패 프로그램을 대체, 보완하는 것으로 돈세탁 방지, 회계법 개정, 정부 구매의 투명성 재고, 반 부패위원회의 활동 개선, 관료주의적 불필요한 규제요소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11. 1월말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달하였고 2월 14일에 교통경찰 근무지침 개선 법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징수된 벌금의 4분의 1은 교통경찰 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 부패 조치는 부패 관행을 없애려는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소요사태의 전이를 의식한 정부 기득권세력의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 노무

아제르바이잔은 미숙련 노동 인력을 풍부히 갖추고 있는 반면 숙련 기술자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다. 이는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자국 내 취업곤란에 따라 우수인력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구 소련의 산업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실업률이 거의 없는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라고 국가통계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실업률은 수십%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월 최저임금을 40AZM에서 2012년 93.50AZM(약 \$120)으로 인상하였다. 1999년에 발효된 노동법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파업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석유 및 가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석유 및 가스산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자가 CASE BY CASE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상하여 인센티브를 정하게 되는데,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외국투자자간에 체결된 석유 및 가스분야 투자계약서는 아제르바이잔 법률에 우선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석유 가스 분야를 제외하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개요

대아제르바이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거의 대부분이 오일가스 부문에 유입되고 있다.

국별 FDI 현황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국제석유가스컨소시엄인 AIOC(Azerbaij 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지분 비율에서 유추해 보면, 영국(37.4%), 미국(22%), 일본(15.3%), 노르웨이(8.6%), 터키(6.7%), UAE, 이란,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아제르바이잔에 투자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3년중 FDI 유입액이 88억 달러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별 내역은 발표하지 않았다. 영국이 부동의 1위 투자국 지위를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투자의 대부분은 BP사가 투자한 것으로 BP는 ACG 유전, Shah Deniz 가스전, BTC 송유관, Sangachal 오일터미널과 같은 유전 및 가스전과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BP사의 2009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BP는 1994년 아제르바이잔에 처음 투자한 이래 누계로 295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2005~2006년에 BTC(Baku-Tbilisi-Ceyhan Oil Pipeline)나 SCP(South Caucasus Gas Pipeline Project)와 같은 대형 석유가스 프로젝트가 종결되고 외국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이 시작되면서 2006년부터 대아제르바이잔 FDI 순유입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지역별 FDI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해상 및 육상 유전이 위치해 있는 바쿠시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바쿠와 인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석유 화학 산업단지인 숨가이트(Sumgait)시로 일부 FDI가 유입 되고 있다.

비(非)에너지분야 최대 FDI유입처는 이동통신 부문이다. 동 분야에 Azercell(터키, 스웨덴), Bakcell(이스라엘), Azerfon(독일, 영국), Cartel 등 4개의 외국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다. 기타 분야 주요 외국투자기업으로는 Garadagh Cement, Castel(맥주), Coca Cola, Pepsi Cola, Hyatt Hotels Baku 등이다.

부정부패 및 투자환경 열악, 작은 시장규모 등 투자장애요인이 많아 비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4. 한국기업 투자동향

수출입은행 통계상 한국기업의 대아제르바이잔 투자는 누계기준(2013.3월말)으로 40건, 422만달러에 달한다.

다만 실제로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은 1개사도 없다.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현황

(단위: 건, US\$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7	1	20	1	5
1998~2006	0	0	0	0
2007	9	30,369	3	76
2008	10	2,869	6	2,373
2009	19	11,425	16	771
2010	6	87	6	87
2011	8	875	7	874
2012	1	36	1	36
누계	54	45,681	40	4,222

자료원: 수출입은행 (2013.09월까지의 통계)

2007-8년 코오롱에서 샌드위치패널, 유아용 기저귀 제조업 합작투자를 검토하였으나 시장규모협소, 부정부패 등 장애 요인이 많아 포기한 바 있다.

2010년에는 한국의 코앤아이사가 차선용 도료 합작투자계약을 아제르바이잔 정부(방위산업부)와 체결하였으나 아제르바이잔 파트너의 관료적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한국 투자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아제르바이잔 진출 한국기업

아제르바이잔 진출 한국기업

회사명(분야)	주소	전화
평화(설계/감리)	Tibilisi avenue, Ministry of Transport of Azerbaijan Republic, PEC office, Azerbaijan	(994-12)430-9308
대우인터내셔널 (무역)	Caspian business center 5th floor, C.Cabbarly 40, Baku, Azerbaijan	(994-50)208-8075
삼성전자(무역)	13th fl., Caspian Plaza, Jabbarli Str., 44, Baku, Azerbaijan	(994-12-)437-3103
울트라건설(건설)	2nd Floor Caspian Plaza C. Cabbarli 44, Azerbaijan	(994-12)437-3470
희림(설계/감리)	International Trade Center 208, Heydar Aliyev 95, Baku, Azerbaijan	(994-12)497-7636
SK C&C(SI)	12th Floor Caspian Plaza, Azerbaijan	(994-12)437-3811
유니코로지스틱스(물류)	3rd floor of "Prime Plaza", 12 Basti Bagirova str., Baku, Azerbaijan, AZ1065	(994-12)436-7850
삼안(설계/감리)	AZ1062, Baku Husein Javid Ave. 33 A	(994-51)984-1748
한라건설	International Trade Center, Heydar Aliyev 95, Baku, Azerbaijan	(994-51)321-3880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아제르바이잔에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은 1개사도 없다.

나. 실패사례

2007-8년에 코오롱에서 제조업(샌드위치패널 등) 투자진출을 검토하였으나 시장규모가 협소한데다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전무하며,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 등 어려운 비즈니스 여건 때문에 투자를 단념하였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요

1) 법령 및 형태

아제르바이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보호법(1992.01.15)’, ‘투자활동법 (1995. 01.13)’, ‘사유화법’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가는 법에서 금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아래에서 열거한 투자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 현지 로컬 법인과외의 합작기업 설립
- 100% 출자기업 설립
- 로컬 기업 인수, 건물 등 자산, 주식 및 채권의 취득 등
- 토지 및 천연자원, 기타 권리 사용권의 취득

외국투자기업은 합작기업, 100% 출자소유기업, 외국법인의 현지 대표사무소를 포함한다.

2) 외국인 투자자 보호 주요내용

아제르바이잔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경유착된 특정기업이 특정분야에서 독점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외국인투자자는 사실상 사업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다.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행위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법률 개정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개정법 적용이 10년간 유예된다. 다만, 국가 안보, 국방, 공중 보건을 위한 경우나 세법개정의 경우는 유예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해가 되거나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국회 결의에 의해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각 결의에 의해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경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즉시 그리고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아제르바이잔 법원 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 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투자유치 인센티브

아제르바이잔에는 에너지 및 농업 등 특정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없으며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확보를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는 토지세를 제외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 필요한 유류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생산물분배협정(PSA) 계약 체결 시 통상 부가세 및 관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PSA계약자 또는 하도급계약자 (subcontractor)는 유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설비, 고정자산, 용역을 수입하거나 재수출 시 관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통관수수료는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이나 수출입 등 관련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다.

8. 투자방식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기업(Joint Venture), 자회사(Subsidiary),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형태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9. 투자진출형태

외국인 투자는 아래에서 열거한 투자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 현지 법인과의 합작기업 설립
- 100% 출자기업 설립
- 현지 기업 인수, 건물 등 자산, 주식 및 채권의 취득 등
- 토지 및 천연자원, 기타 권리 사용권의 취득

외국 투자기업은 합작기업, 100% 출자소유기업, 외국법인의 현지 대표사무소를 포함한다.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개관

- 아제르바이잔에서 법인체(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 법률적 근거에 의한다.
 - 민법 제2조 (2001년 9월 1일 개정)
 - 법인의登記 및登記부 관련법률(2003년 12월 12일 개정)
- 아제르바이잔에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법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출 할 수 있다.
 - 대표사무소나 지사와 같은 형태
 - 법적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체
- 등록절차 일원화
 - 2008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영리법인 또는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등록에 있어서 “원스톱숍(one-stop shop)”시스템을 도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원스톱숍은 현지인 법인과 외국인 법인에게 공히 적용되며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회사설립은 단일 창구인 세무부에서 모든 관련서류를 일괄 처리

나. 투자형태별 법률적 구분

1) 대표사무소 및 지사

□ 법적 지위 및 형태

외국법인의 본격적 투자진출 이전에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설립이 주로 이용되는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와 지사는 아제르바이잔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 민법에 따르면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별도 하위부서로 해당법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능만 갖고 있기에 대표사무소는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지사는 대표사무소의 기능을 포함하여 법인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에 참여하는 법인의 별도 하위부서이므로 지사의 활동 범위는 대표사무소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지사는 법인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등기

외국 영리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세무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외국 비영리법인은 법무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등기를 위해 세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3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된다.

비영리 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40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된다.

2009년 9월 1일 개정 발효된 관련법령에 따르면 외국 비영리 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해당 모(母)회사와 작성한 합의문안대로 등록해야 한다. 이 개정된 법령은 아제르바이잔에 소재하는 외국인 비영리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부책임자는 아제르바이잔 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비용

외국법인의 지사, 대표사무소 등기비용은 AZN 220(약 US\$280)이며, 등기를 마친 후에 직인(일종의 회사 인감)과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2) 영리법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세무부 국가등기 대상이 되며, 세무부는 필요서류를 제출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기업의 등록세는 AZN 220(약 US\$280)이며 일반 기업의 경우 AZN 11(약 US\$15)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법인설립에는 일반적으로 설립 결의서와 정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1인 참여자에 의한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 결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설립 결의서는 설립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설립자와 법인 사이 관계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정관은 법인의 구조와 경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경영자와 주주의 권리를 규정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기업에 관한 법률은 합자 주식회사 정관자본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은행과 보험회사) 특정한 법률에 의해 추가 요건이 부과된다.

아제르바이잔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며, 영리법인은 다음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뉨)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유한합명회사(Limited Partnership)
- 추가책임회사(Additional Liability Company)

아제르바이잔에서 선호되는 회사설립형태는 합자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이며, 아제르바이잔 법령에 의한 두 회사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JSC(합자회사)	LLC(유한책임회사)
발기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명 이상 ○ 최대 50명(폐쇄형) ○ 50명이 초과될 경우 개방형으로 전환 또는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명 이상 ○ 법정 최대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발기인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납입액 한도에 대해 책임 	
최소자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AZN 4,000 ○ 폐쇄형: AZN 2,000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 자본가치결정: ① 신규 설립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회의, ②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요건은 없으나 민법(the Civil Code 2000)은 적절한 행정 기관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은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ttee)에 등록되어야 함. ○ 개방형 JSC는 공개매수(Open Offering), 폐쇄형 JSC는 비공개매수 (Close Offering)을 통해 증권 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자본이 증권일 필요는 없음, 따라서 국가증권위원회 등록이 불필요
지분양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지분양도제한 없음. ○ 폐쇄형: 주주들은 타 주주의 지분양도에 우선 반대권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인가서에 따로 조항이 없으면, 사원은 제 3자에게 지분 양도 가능함.
기업지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및 자본금 변경, 청산, 조직 변경 등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 주주50인 이상의 JSC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SC와 동일 ○ 단 감독기구는 강제요건이 아니며, 사원이 원할 경우 설치할 수 있음.

구분	JSC(합자회사)	LLC(유한책임회사)
	○ 경영기구(Management Body): 이사회 또는 개별이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공시	○ 연차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의무적으로 공시	
청산 및 구조조정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총회 결정에 의함. ○ JSC는 LLC로 조직변경 가능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 총회 결정에 의함. ○ LLC는 JSC로 조직변경 가능
조세	○ 조세처분 동일	

다. 외국인 투자진출 선호형태

아제르바이잔에서 외국인들이 대체로 많이 선택하는 투자진출 형태는 아래 2가지이다.

- 지사 혹은 대표사무소
- 세제 운영상 또는 고용 관련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하고 현지에서의 사업영위에 법적 제한이 적은 유한책임회사(LLC)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가 적합하나 초기 진출 시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라.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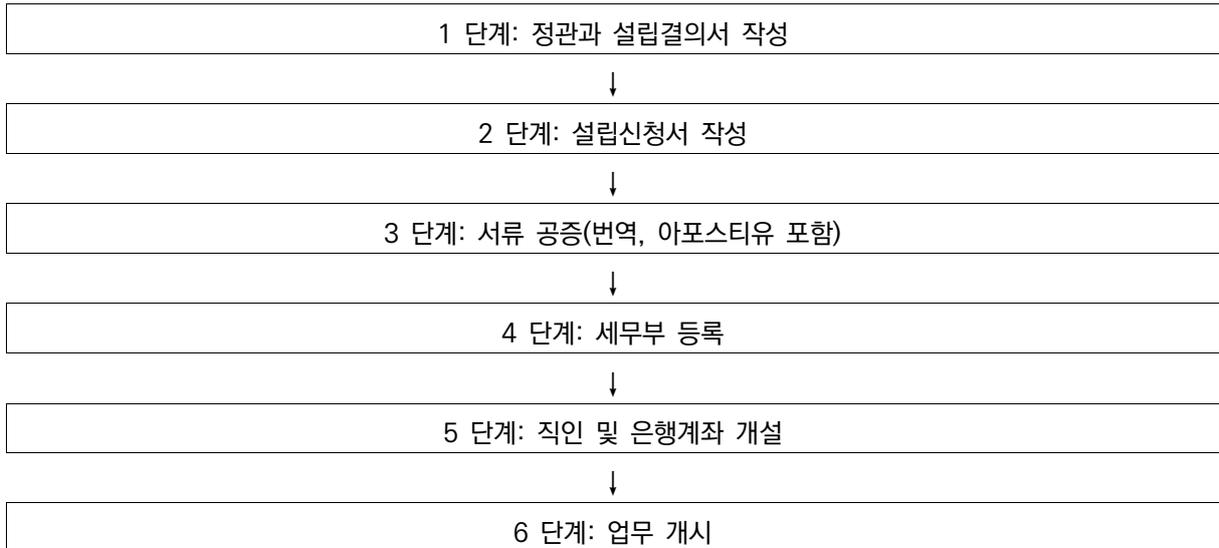
최근 도입된 One-Stop-Shop 시스템으로 인해 모든 영리 법인 및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과 등록은 세무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설립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하며, 자국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공식 서류로 인정된다. 모든 준비된 서류는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 아제르바이잔 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받는다.

- 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 필요서류
 - 본사 이사회 결의서
 - 지사 설립
 - 지사장 임명
 - 지사장 위임장
 - 지사장 권한 지정
 - 본사 정관
 - 지사 법적 주소(Lawful address)
 - 신청서

- 일반 법인체(예: 유한책임회사) 설립 필요서류
 - 정관
 - 외국인 여권
 - 외국인의 business background 관련 서류 (예시: 한국 사업자등록증 등)
 - 법인체 법적 주소
 - 신청서

법인 설립절차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청산·철수 개요와 절차

외국투자를 받은 기업은 상황에 따라 청산 가능하며 회사의 청산은 아제르바이잔 법률에서 명시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사의 축적된 자산은 이들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대상이 된다.

□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등기상의 청산의 효력

외국계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법률에 따라 정부의 법인 등록 장부에서 배제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취소가 성립된다.

□ 등기 수정

외국계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의 조직의 법적 형태가 변경될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 안에 관할등록기관에 재등록 하여야 한다.

□ 법인 등록 취소와 신고

외국계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의 법인 등록 취소는 등록취소에 대한 각각의 관련 기관들의 신고서와 청산번호, 그리고 증명서를 근거로 성립된다.

등록관련 기관은 외국계 법인을 재산 소유자의 결정, 공인기관 또는 법원의 청산 결정 후 5일 이내에 등록 장부에서 삭제한다.

등록관련 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 각각의 기관들에게 외국계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의 법인의 청산을 알린다.

나. 은행의 청산

은행은 중앙은행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청산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자발적 결정으로도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손실방지를 위해 파산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 최대 18개월까지 보호관리가 가능하다.

다.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발적인 청산과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합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라. 종업원 해고

기업청산 및 작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통상 월급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며칠간 휴가를 주어야 한다.

12. 투자입지여건

가. 개요

아제르바이잔은 10개의 경제지구(Economic Region)와 본토와 떨어져 있는 비지인 Nakhchivan 자치구, 아르메니아와 분쟁 증으로 현재 아르메니아에서 점령하고 있는 Nagorno-Karabakh 공화국(아제르바이잔의 Yukhari Garabag 경제지구의 주요구역과 Kelbajar-Lachin 경제지구 모든 구역을 포함) 등 크게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기 12지역은 또한 59개의 구역 (District-rayon)과 11개의 도시(sahar)로 나뉘어져 있다.

참고로 Nagorno-Karabakh 공화국의 경우 구소련시절 아제르바이잔 영토였으나 1990년 초반부터 아르메니아의 군이 주둔해 있다.

1) Absheron(압셰론)

수도 바쿠(Baku: 인구 210만 명)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Absheron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Absheron은 아제르바이잔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로 낮은 산과 평지로 이뤄져 있으며 기후는 아열대 사막 기후다.

이 지역에는 돌, 석회, 시멘트, 석영(quartz), 벽돌 및 모래가 많고, Samur강과 Kura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수로가 있어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야금, 에너지, 경공업, 식품가공, 건설, 교통, 서비스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유리과 폴리머(polymer)도 생산되고 있다.

농업은 도시 근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소, 와인, 화초, 아열대 과일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올리브, 사과, 피스타치오 등의 재배도 가능하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의 인프라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잘 구축이 잘 되어있으며 북부에는 해양 리조트도 있다.

2) Aran(아란)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첫 정착지인 Aran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반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평지이며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다.

주요 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요오드 브롬광석과 건설자재 등이며 풍부한 태양광과 Kura와 Araz강의 수자원, 토지 등의 지형적 장점이 있다. 남서쪽은 제조업도 있다. 화학, 기계, 식품, 건설자재 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Mingechevir, Salyan과 Neftchala 구역(rayon)에는 화학공장이 있으며 Ali-Bayramli, Salyan 구역에는 중공업 공장이 있다. Mingechevie은 면직물, Yevlakh 구역은 모직물 가공, Ali-Bayramli는 가죽, Gazi Mammad의 카펫 등이 주요 산업이다.

Aran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 바쿠와 조지아, 이란과 터키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철도가 Aran 지역을 통과함. Yevlakh와 수도 Baku는 비행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3) Daglig Shirvan(달리그 쉬르반)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지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의 기후는 건조하고 더운 편인 반면 산악지대의 기후는 추운 편이다. 돌, 모래, 찰흙, 암설(detritus)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산악지대에도 일부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온천이 많이 있다. 목축, 포도재배 및 포도주 제조가 주요산업이며 전통적인 카펫 생산도 하고 있다.

4) Ganja-Gazakh(간자-카자크)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비교적 아름다운 경치로 휴양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해발 1,500m 지대에 웅장한 Goy-Gol 리조트와 Hajikend 리조트가 있으며 Naftalan의 기름은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총 GDP의 12~13%를 생산하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과 가공업이 발달했다. 야금 산업은 Ganja와 Dashkesan 구역에서 주로 발달되어 있으며 자동차, 농업, 기계, 서비스 및 통신도 주요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 총 농업의 13~14%, 감자의 80~85%, 포도의 28%, 목축업의 15%가 Ganja-Gazakh 경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재배되고 있다.

5) Guba-Khachmaz(구바-카치마즈)

아제르바이잔의 북동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카스피해를 끼고 있음. 농업과 농수산물가공업이 주요 산업이며 채소 및 과일 통조림, 어류 가공, 카페트 생산이 이 지역의 특산품임. 곡물 재배업과 유제품 생산업은 Khachmaz와 Devechi 구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원유, 혈암유(shale oil), 천연가스, 모래, 자갈과 점토가 매장되어 있으며 수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이 지역은 요양원과 온천지도 대거 갖추고 있어 관광업이 잠재력이 있다.

6) Lankaran(렌코란)

남동부에 있는 Lankaran 경제지구의 경우 서쪽과 남쪽에는 이란을, 동쪽에는 카스피 해안을 접하고 있다. 크게 저지대 Lankaran과 산악지대 Talish 지역으로 분류되고 7개의 다양한 기후대가 혼재해 있다.

벽돌, 모래, 석회 등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고 숲과 비옥한 토지가 이 지역의 주된 자원으로 이 지역의 26%가 숲으로 덮여 있다.

농업 가공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며 비옥한 토지와 습한 아열대 기후, 풍부한 노동력은 농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다. 이 지역에서의 채소, 차, 감귤, 과일재배 및 포도주 제조 업은 유망 산업 분야다.

Baku-Astara 고속도로와 철도가 주된 교통로다. 향후 North-South Transport Initiative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아제르바이잔-러시아-북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정비될 경우 무역 중심지로의 부상이 기대된다. 생태관광, 요식업 등의 여가산업 발전 잠재력이 있다. 인접한 이란은 인구 7,000만의 국가로 2,000만명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이 살고 있어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있다.

7) Nakhchivan(나이체반)

옛 실크로드가 통과했던 지역으로 Nakhchivan 자치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떨어져 있는 비지(ENCLAVE)로서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에 둘러싸인 자치공화국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국토의 32%는 해발 600~1,00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48%는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몰리브덴과 암염, 백운암, 대리석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온천이 흩어져 있다. 농산품의 가공 및 제조가 주요 산업이며 양 목축도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여행지와 화산지대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란과 터키와는 도로 및 Nakhchivan 공항을 통해 물류교환이 이루어진다.

8) Sheki-Zagatala(셰키-자카탈라)

코카서스 산맥 남부, 아제르바이잔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러시아 및 조지아와 접경하고 있다.

주요 자원은 구리, 황화철강, 납, 아연이며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으로 담배, 누에고치, 과일, 곡물류 등이 재배되고 있다.

9) Yukhari Garabag 및 Kelbajar-Lachin (Nagorno-Karabakh 공화국)

Lachin, Kelbajar, Gubadli, Khojavend, Khojali, Shusha, Jebrayil과 Khankendi 구역은 현재 아르메니아군의 완전지배를 받고 있으며 Agdam과 Fuzuli 구역은 부분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두 지역의 주요 산업은 모두 농업으로 포도, 곡물, 과일, 담배 등이 주요 산물이다. 금광이 있으며 수은, 대리석, 석재, 코펠, 펄라이트 등도 매장되어 있다.

13.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외국인 투자 개방성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내외국인 평등을 외치고 있으나 많은 분야에서 고위관료의 가족들이 소유한 기업들이 특정분야에서 독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분쟁 해결 어려움

아제르바이잔 분쟁 해결 제도는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부재

아제르바이잔에는 오일·가스 분야 생산물분배협정(PSA) 체결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 다른 투자 인센티브는 없다.

라. 부동산 소유 불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모기지법(2005), 토지법(1999), 토지개혁법(1996), 토지임대차법(1999), 토지시장법(1999) 등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인이나 아제르바이잔 법인(외국 투자기업 포함)은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 매매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차만 할 수 있다.

마. 재산권 미보호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가짜 명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바. 부정부패

정책의 투명성 결여,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관료주의적 행정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반부패법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각종 규제 제도, 과세, 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부패의 소지가 많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비즈니스 환경을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때문에 굶직한 외국인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났다.

사. 숙련 인력 부족

아제르바이잔은 실업률이 높아 인력을 채용하기는 쉬우나 숙련 인력은 부족하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노동시장 개황

아제르바이잔 비즈니스의 주요 강점 중의 하나는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이다. 2012년 노동인구는 대략 450만 명으로 전문교육 또는 상위교육을 받은 노동인구는 약 120만 명 정도이다. 2012년 기준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3마나트(약 462달러)다. 다만 교육 제도가 취약하여 엔지니어나 숙련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나. 노동제도

노동관계는 노동법(The Labor Code, 1999년)과 하급법이 규율하고 있다. 개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법인도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고용계약은 노동관계법 보다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일방이 3일 전 통보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기록부는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노동기록을 기입해야 하나 강제이주자, 난민, 외국인, 무국적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록은 피고용자의 국가연금 지급기준이 된다.

다. 현지 직원 채용

2011년 12월에 책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93.50마나트로 미화 약 \$120이다.

정규노동시간은 주 40시간(특정 노동집단은 그 이하)이다. 국방, 공공안전, 공공시설 공급, 기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초과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노동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근무 시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률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무일은 18일(17일은 법정공휴일, 1일은 법정애도일)이며,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21일이다. 병가는 최초 14일 이내는 고용주가, 초과하면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 보장기금이 지급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이며, 고용주가 아닌 국가 사회보장기금이 지급한다.

라. 퇴직제도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며,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절적 특성을 갖는 노동, 한시적 프로젝트, 당사자간 합의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7일 전까지 계약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법정사유: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 잉여인력 발생, 근로자의 자질이 임무수행에 부적격한 경우, 노동조건의 변화 등).

고용주는 고용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할(통상 만료 전 2개월)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1개월전에 통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과 중 구직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특정 근로자(임산부, 3세 미만 아동 부양 여성)와의 고용계약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잉여인력 발생, 작업장 폐쇄, 기업청산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인은 최대 3개월 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법정 사회보험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월 근로자 급여의 22%를 법정사회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 총액의 3%를 사회보험으로 원천 징수해 함께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가 사회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업, 운송, 건설 분야의 경우 국가 전체 평균임금의 최소 70%, 기타 업종은 40% 이상이다.

아제르바이잔에는 법정의료보험도 있으나 적용요율 및 절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5.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구분

조세제도는 일반조세제도(Statutory Tax Regime)와 석유관련 조세제도(Oil Consortia Tax)로 이원화되어 있다. 석유관련 조세제도는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과 진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HGA)에 따라 진출한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1) 일반조세

아제르바이잔은 2001년에 현행 조세법을 채택하였다. 일반 조세는 생산물분배협정(PSA)이나 진출국정부협정(HGA)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대표사무소나 지점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조세등록을 해야 하고, 업무중단 전 한달 이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종류	세율	납세대상자	비고
법인세 (Profit Tax)	20%	모든 법인	과세기준: 발생이윤
사회보장세 (Social Contributions)	25% (이중 3%는 종업원 소득에서 원천징수)	고용주	과세기준: 종업원소득
부가세(VAT)	18%	부가세 납부 등록 (대상)자	과세기준: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소비세 (Excise Tax)	0.08%~12.5%	술, 담배, 휘발유 제조자 또는 수입자, 자동차 라이트 수입업자, 레저/스포츠 요트 수입업자	자동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
재산세 (Property Tax)	최대 1%	자산(건물, 차량 등) 소유자	과세기준: 연평균가치
토지세 (Land Tax)	100sq m 당 AZN0.1~AZN10 사이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사용자	면적, 입지, 지목에 따라 차등 부과
광업세 (Mining Tax)	3%~26%	광물자원 채굴자	금속: 3%, 가스: 20%, 원유: 26%
단일종합세 (Simplified System Tax)	4%(바쿠지역) 2%(기타지역)	분기 매출이 약 \$47,000 미만인 법인과 분기 매출이 약 \$28,000미만인 개인	과세기준: 매출액, 부가세, 법인세, 재산세 면세
자동차세 (Road Tax)	년간 AZN2,800	외국 및 현지법인	자동차 엔진 용량, 차축의 수, 적재중량,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

자료원: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12

2) 석유관련 조세

생산물분배협정(PSA), 진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등은 아제르바이잔 내 유전개발 또는 송유관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세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PSA에서 법인세는 원천징수방식을 따라 지급 가능하다. 원천징수 세금 납부로 아제르바이잔 내 모든 납세(피고용자 및 사회보장 관련 납세는 제외) 및 보고의무가 완료되며, 원천 징수 세율은 PSA에 따라 5~8% 수준이다. 또한 PSA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16. 금융제도

가. 개괄

금융부분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에는 현재 43개의 은행이 영업하고 있으나 자본규모 1천만 마나트(\$1 = 0.785마나트)를 넘는 은행이 11개에 불과하며, 1천만을 넘는 11개 은행 역시 규모가 매우 작다. 은행들은 1년 이상 장기 용자는 실시하지 않으며 1년 미만의 용자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용자가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상업자금으로 산업자금에 대한 용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출이자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예금 이자가 최고 20%에 달함)

미국 상무부는 아제르바이잔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고, 이율도 비싼 관계로 해외로부터 자금 조달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현지 은행들이 건설, 통신, 식품처리 및 포장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대출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흉내만 내고 있는 수준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HSBC와 British Bank of the Middle East도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03년 철수하였다.

나. 수입대금 선급

수입대금은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품이 180일 이내에 인도된다는 조건 하에 25,000달러까지 수입대금의 선급 가능하다.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급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허가기준인 '건전한 거래' 여부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단한다.

다. 과실송금

외국인의 투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과 정부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연재해, 전염병, 사고 및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용 및 징발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만일 상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수용 혹은 징발 당시의 투자금이 보상되는데 외화로 지급되고 해외송금이 보장된다.

조세를 납부한 후 이익 송금은 보장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 혹은 공공 기관의 불법 행위로 입게 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관리

1) 외환법

법정통화인 Azeri Manat는 199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거시경제 방침에 따라 화폐단위 변경조치가 단행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신 Azeri Manat를 도입하였다.

외환거래 관련 기본법은 외환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1994)이며,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Azerbaijan:NBA)이 외환정책 결정권과 외환통제와 관련된 규정 제정권을 갖고 있다.

외환법은 해외부채 상환, 로열티,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환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 거주자는 아제르바이잔에 계속적인 거주지를 갖는 개인 및 아제르바이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함.
- 외국법인의 아제르바이잔 내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임.
-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규제가 거주자에 비해 훨씬 덜 제한적임.

2) 외환거래

수취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지급은 국내통화로 결제한다.

외환의 매매·교환은 인가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거주자는 국내은행에 외환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국외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 경상거래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계약 거래대금 송금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의 금융제공을 위한 송금
 - 배당금, 이자, 기타소득의 송금
 - 유산, 임금, 연금, 수당 등 비상업적 송금
- 자본거래
 - 해외직접투자
 - 해외증권 매입
 - 해외 고정자산 소유권 및 권리 취득

- 180일 이상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
- 180일 이상의 해외예금
- 기타 비경상거래

3) 특별송금제도

- 송금액 1만 달러 초과: 동 금액이 현금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유입되었음을 입증하는 통관증명서, 개인의 입국비자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송금이 가능하다.
- 송금액 5만 달러 초과: 외환을 취득한 해외은행으로부터 은행증명서, 현금영수증 등의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4) 수입대금 선급

수입대금은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상품이 180일 이내에 인도된다는 조건 하에 25,000달러까지 수입대금의 선급 가능하다.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급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할 때, 허가기준인 '건전한 거래' 여부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단한다.

나. 자금조달

아제르바이잔의 금융시장은 규모가 작고, 미약하여 대부분 현금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은행에서 단기 무역 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 혹은 모기지론은 이자율이 높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대출 시스템이 점차 확산되고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은행권이 실물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신용이 민간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기존의 신용은 규모가 너무 작아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영세기업이 활용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업 대부분이 담보 없이는 신용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장기 거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원조성 차관(Donor-Backed Credit: 이하 DBC)은 유용하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DBC를 제외하고 12~18개월을 초과하는 신용은 찾아볼 수 없다. 금융시장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며 현지 은행들이 제시하는 대출 조건은 상당히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외화 대출시 이자는 연 15~25%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2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많은 현지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채를 이용하는데 약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은행권에 머물고 있어 이들 자금을 제도권 내로 끌어 들이는 것이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1 US\$ = 0.785AZM / 2014년 8월 7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AZM)
식품류	쌀 1kg	1.9
	계란 10개	1.7
	쇠고기 1kg	10.5
	돼지고기 1kg	8.5
	우유 1L	2.0
	식용유 1L	2.4
	생수 1L	0.5
	맥주 (EFES 500ml)	1.5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2.5
	김치찌개 1인분	8.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의료보험 제도 미시행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25.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40,000
	무연휘발유 1L	0.96
	자동차 등록비	30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1,200
교통비	공항 1시간 주차료	1.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0.15
	시내버스 기본요금	0.2
	택시 기본요금	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무료
	국제전화 요금 (4분, 독일로 걸 때)	1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7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1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6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구분	항목	가격(AZM)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9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US\$1,3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3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US\$1,8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90일
	연간 국경일수	16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

2. 취업유망분야 및 참고사항

건축 설계나 감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취업이 유망하다.

희림이나 삼안 등 일부 국내 기업들도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 중이다.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시간약속

- 상담 장소에 10분전에 도착
- 상대방은 시간 약속을 좀처럼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 필요. 다만 한국과 같은 선진국 기업인들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

나. 옷차림

- 겉모습을 중시하므로 남성은 가급적 타이 차림의 정장 착용 필요
- 다만 더운 여름철에는 반팔 와이셔츠도 무방
- 여성의 복장은 인근 중동국가에 비교하면 자유로운 편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삼가는 것이 좋음.

다. 인사 및 대화

- 첫 대면 시 서양식으로 악수가 일반적이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포옹을 하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음.
- 첫 대면 시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상담에 임할 것
- 상대방에게 보다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러시아어나 현지어로 할 수 있도록 준비
-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단순히 Mr.로 하는 것보다는 명함에 적힌 직함을 불러주는 것이 좋음.
- 즉, 닥터인 경우에는 닥터 아무개씨, 전직이 장관이면 장관 호칭 등
- 만나자마자 상담에 관한 얘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 전에 상대방의 건강, 취미 등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치 문제(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는 독재체제이나 이에 대한 비방은 금기), 상대방 부인에 대한 질문, 자존심을 건드리는 화제 등은 삼갈 것

라. 상담 및 계약체결

상담자료는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며, 특히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상대방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슬람 신자들은 대체로 낙천적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당황케 하는 "No" 또는 "I can't"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인살라" 식의 완곡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협상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가격은 가급적 높게 책정하여 협상의 진전 및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양보를 하여 융통성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중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이야기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시간을 뺏는 일이 왕왕 있어 마치 상담에 관심이 없거나 성의가 없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이들의 관습 및 생활태도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해하고 조금은 여유를 갖고 임하는 것이 좋다.

소량주문에도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문구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상담종료

상담이 끝나면 보통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는 추가 상담 및 상대방 파악을 위한 절차이므로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다.

상담이 끝나면 손님을 현관이나 엘리베이터까지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담 후에는 독촉하지 말고 느긋한 자세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 특히 사장이 아닌 직원과 상담한 경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바. 식사 초대 시

식사에 초대받은 경우 보통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화가 이루어지며, 식사가 끝난 후 커피가 나오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도착 전 준비사항

1) 식품 구입

한국식품점이 없어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음식에 필수적인 재료는 한국에서 조달해야 하며, 현지시장에서 통상적인 야채, 쌀 등은 구입 가능하다. 또한, 카스피해에는 철갑상어 외에는 어종이 많지 않아 생선 등 해산물구입이 어렵다.

2) 건강관리 및 위생

○ 수도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도물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수도물에 석회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치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식수의 경우 생수를 마실 것을 권장하며 음식 조리 시에 사용하는 물 역시 가급적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많은 외국인들은 양치질에도 생수를 이용하고 있다.

○ 위생

바쿠는 준사막지역 특징 및 건설경기 영향으로 먼지가 심하게 많으며, 바쿠 주변 카스피해도 오염이 심한 편이다. 또한, 바쿠 외곽도시 ‘숨가이트’는 세계 제1의 오염도시로 발표된 바 있다.

○ 건강관리

특이한 풍토병은 없으나 상당히 건조한 기후 특성상 피부가 약한 경우에는 피부 갈라짐,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어린아이 및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

3) 기후 및 의복

한국처럼 사계절이 존재하며 여름에는 한국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가고 햇볕이 강하므로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등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산 의류는 질이 떨어지고 유럽산 등 수입의류는 비싸므로 충분한 양의 옷을 한국에서 구입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사 화물

□ 전기 및 전자제품

- 현지 전기 시스템: 220 V / 50 Hz
- 한국 전자제품 현지 사용 가능 여부
 - 컴퓨터, 오디오제품, TV, 기타 전자제품 사용 가능하나 220 V / 50 Hz로의 조정 필요
 - Hz 조정 없이 사용하면 모터가 있는 냉장고, 가습기, 전기밥솥 등의 경우 모터가 타버리는 등 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 (특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그대로 들여올 경우 주의 필요)
 - 삼성, LG 등 한국제품 현지 구입 가능(삼성전자 현지지점 존재)

□ 가구, 비품 등

- 현지 주택 가구 비치 여부
 - 대체로 furnished로서 기본가구(부엌시설 및 침대, 소파 등)가 비치되어 있으나 질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며 집주인과의 협상여하에 따라 TV 등도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음(가구의 질 및 TV 등 추가 비치여부가 임차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한국과 현지 가구 가격 비교
 - 대부분 가구가 수입품으로 매우 고가이며 수량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음.
 - 아제르바이잔 제작 가구는 질이 많이 떨어지나 비싼 편임.
- 운송비 감안, 기존 한국가구를 가져올 경우 경제성 여부
 - 현지가구의 질이 조잡하고, 외국산 가구는 고가임을 감안할 때, 기존 한국 가구를 가져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운송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임차주택의 Furnished상태 등 케이스별로 비교하여 지참여부 결정이 요망됨.

□ 이사회물 탁송 및 보험

- Door to Door 또는 Door to Port 관례
 - Door to Door 서비스가 가능하며, 탁송의 안전성 면에서 유리함.
- Door to Port의 경우, 이사회물이 하역 항구 또는 공항 세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기까지 면세 창고에서 상당기간 적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 통관과정이 복잡하고 보관 비용이 별도 부과되며 트럭 서비스도 가변적이라 불편한 점이 많음.
 - 특히 도착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별도 보관요금을 부담하는 일이 허다하므로 도착 후 계속 확인해야 함. 따라서 가급적 Door to Door식 탁송이 요망되며, 이 경우에는 Storage Charge 없이 화물을 받을 수 있음.

- 화물 운반기간
 - 통상 3개월 소요
 - 때로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도 있음.

□ 자동차

내륙국인 특징상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차량인도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지만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국산차의 경우
 - 당지에는 현대 딜러가 있으며(정비공장 보유), 기아, 쌍용 등 구입 가능
 - 현대차량의 경우 한국에서 주문해 오는 것과 현지 딜러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있으나, 차종 및 주문시기에 따라 가격/인도소요시간 등 측면에서 우열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도로사정에 따라 SUV 차량이 인기
- 국제면허증이 통용되는 국가가 아니며, 입국 후 1년간은 한국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 후 공증한 서류가 있을 시 운전가능.
 - 단, 1년이후 현지인과 같이 필기, 실기시험 후 면허증 취득(러시아어 혹은 영어로 필기 시험 가능)

5) 각종 증명서

- Residence Permit, Work Permit 신청, 장기 체류자의 경우 여권갱신 등에 사진이 많이 필요하므로 여권용 명함판 등 천연색 사진 10매 이상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좋음(단, 사진 배경 등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주재국 사진관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함).
- Residence Permit, Work Permit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경우 있으므로 관련 서류(가급적 영문)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오는 것이 좋으며, 한국의 경우 인터넷 서류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오는 것이 바람직함.

나. 도착 후 참고사항

1) 주택임차

- 신축 및 수리된 주택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적합한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차료가 비싼 편임.
- 주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임차기간 중 고장이 나거나 파손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해 계약 종료 시 원상 회복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임차주택에 기본 가구(소파, 탁자, 침대, 옷장 등) 및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조정하여 추가 비치가 가능

2) 교육

□ 일반 정보

- 학제: 초, 중, 고 11학년제, 대학 4년제
- 입학 시 기본 제출서류: 건강증명서, 본국의 수학증명서

□ 유치원 입학

- 현지 유치원이 다수 있으나 탁아소 수준(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인 경우가 많으며 무상교육임. (아이 식비 등으로 20AZN지불)
-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150AZN~300AZN, 혹은 그 이상임.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입학

- 주재국 교육부에 본국의 수학증명서, 건강증명서 영문본을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학생의 요청 등을 수렴하여 해당 학교 교장에게 연락. 교장이 입학할 경우 입학 가능(학교 특성에 따라 영어 혹은 수학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담임교사와 1:1 과외를 통해 별도로 아제르바이잔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음.
- 국공립학교의 경우 무상교육 단, 처음 입학 시 입학금 100AZN정도 지불
- 1년에 몇 차례 수리비, 교사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에 지불

□ International School 입학

- TISA(The International School of Azerbaijan: 영국계 학교)
 - 홈페이지 www.tisa.az, 전화 994-12-497-3028
 - 3학기제 (Term 1: 8.20~11.23, Term 2: 11.26~3.14, Term 3: 3.31~6.20)
 - TISA 학교 당국은 수학, 영어를 위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학년 및 반을 배정하며 IB Diploma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국 및 유럽대학 진학 가능
- Baku International School(BIS) (미국계 학교로서 미국대사관 직원자녀가 다수 수학)
 - 홈페이지 baku.QSISchool.org, 전화 994-12-440-6616
- 구체 입학 필요서류 등은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 필요

3) 의료시설

- 병원이 매우 열악. 비교적 양호한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병원으로는 대통령실 산하 'Central Clinical Hospital'이 있으며 기타 고급병원이 몇 군데 존재
- 경희대학교 및 SEBA(한-아제르 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병원이 있으며 경희대 한의사 1명 및 물리치료사 1명이 교대로 근무중인 바, 간단한 한방치료 가능
- 기본적인 의약품은 현지 구입이 가능하나, 의약품 설명서는 보통 러시아어로 되어 있음.

4) 교통

□ 대중교통

- 버스: 대우버스 도입등으로 소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많이 교체되었으며 요금은 0.2AZN
- 지하철: 바쿠 시내에는 지하철이 운행중이며 카드를 구입해 사용. 1회 요금은 0.15AZN
- 택시: 미터기 없이 기사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한 후 요금을 흥정해야 함

□ 자가운전

- 도로 포장 상태 열악, 난폭 운전, 무단 횡단 등의 문제가 심각해 자가운전 시 고도의 주의가 요구
 - 현지인 기사를 고용할 경우 월 \$600 수준
 - 대부분의 기사는 아제르바이잔어와 러시아어 구사 (일부 젊은 기사의 경우 러시아어를 구사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자동차보험
 -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한국과 같이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보험가입 시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여권, 차량구입가격 제시

바쿠 시내 소재 주요 보험사명 & 연락처

MBASK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
Tel : (994-12)498-9110	Tel : (994-12)596-2202
FAX: (994-12)498-1062	FAX: (994-12)596-2212
주소: AZ1095, Azi Aslamov street 80/9	주소: AZ1065, Block 611, Jafar jabharli street
Standard Insurance	Pasha sigorta
Tel: (994-12)497-3760	Tel : (994-12)598-1803
FAX: (994-12)598-3760	FAX: (994-12)598-1807
주소: AZ1014 Shamsi 94 Badalbayli street	주소: AZ1000, 170 Tolstoy street

5) 종교 활동

- 주재국은 이슬람국가로서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함.
- 외국인이 주로 가는 개신교 교회 및 천주교 성당이 존재하며, 예배 참여 가능

6) 언론 매체

- 일반 TV 채널은 모두 아제르바이잔어로 방송되며 위성 TV 설치 시 각국 주요방송 시청 가능
 - 아제르바이잔 주요 TV채널: AzTV(국영방송), ANS, Khazar TV, iTV, Space TV, LiderTV
 - 위성 설치 시 시청 가능한 한국 방송: 아리랑TV, KBS World
- 신문의 경우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어로 발행되나 영자 및 러시아어 발행 신문이 있음.
 - 주요 영자신문: AzerNews, Azer Times, Baku Sun
 - 주요 러시아어 신문: Zerkalo, Eho, Azerbaydjanskiye izvestiye

7) 은행 거래

Citibank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외국계 은행은 없으며, 은행의 종류는 매우 많으나 신용도가 낮은 은행이 다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에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좌 개설은 예치액, 여권만 준비하면 보통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아제르바이잔 주요 은행
 - International Bank of Azerbaijan
 - 독립은행으로 가장 안전한 편
 - 시내 Main Office를 비롯 시내 곳곳에 지점이 개설되어 있음(단,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통해서만 은행 거래가 가능)
- 일반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으로 송금가능하며 송금액에 따라 송금 수수료가 달라짐.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송금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여권 (신분증)
 - 통장
 - 송금 신청서: 송금하는 국가, 해당은행 주소, 은행의 Swift Code, 중계은행이 있는 경우 중계은행의 Swift Code, 계좌의 예금주 등을 기재
 - 송금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제르바이잔 입국 시 가져온 금액(세관 신고필요), 개인 소득액의 합산 금액(대사관에서 증명서류 작성) 이상을 송금할 수 없음.

8) 통신/인터넷

□ 인터넷

- ADSL 설치
 - 인터넷 회사에 가입을 신청(가입비 및 모뎀구입비 지불)
 - 주요 인터넷 Provider
 - Uninet (www. azuni.net)
 - Adanet (www.azdata.net)
 - Bakintelnet (www.bakintel.net)
 - Intrans (www.az)
 - Azeronline (azeronline.com)
 - Ultel (www.ultel.az)

□ 우편

국제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은 많지 않으며, 분실의 위험 등이 있으므로 가급적 중앙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 경우에도 우편물이 제대로 수령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우편물은 DHL이나 FEDEX와 같은 국제 특송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화

- 통화 품질은 좋지 않으나, 국제전화 요금이 비싸므로 Skype 등을 이용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휴대폰은 GSM방식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이 많기 때문에 구입은 어렵지 않으며, 일반 휴대폰의 가격은 100달러~300달러 정도이다.

5. 생활여건

가. 주거여건

아제르바이잔 생활환경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경제발전을 반영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무선 통신망은 인구기준 아제르바이잔 전체의 90%까지 보급되어 있으며 바쿠시에서는 ADSL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도로망은 포장 상태 등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나 바쿠와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하수 처리시스템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수돗물은 석회성분이 많아 그냥 마실 수 없으며 생수를 구입하여야 한다. 또 수도의 단수나 전기의 정전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바쿠시 내 아파트 및 사무실 임차비는 서유럽 어느 도시 못지 않을 정도로 높다. 사무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공급이 충분치 않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고 외국기업이 임차할만한 사무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오피스 건물이 많이 공급되고 외국기업의 진출도 부진하여 최근 사무실 임차 문제는 대체로 해소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치안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경찰력이 강력하여 인근 CIS 국가 대비 범죄율은 낮은 편이며 거리를 보행할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피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돈을 꺼내 보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복장과 관련, 남자들은 더운 여름 철에도 항상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며 여자들도 인근 이슬람권 국가와는 달리 자유롭다.

젊은 세대는 영어를 많이 배우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어나 러시아어를 모르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나. 교육여건

외국인 학교는 영국계(TISA) 및 미국계(BIS) 두 곳이 있다. 이 외에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외국인 학교가 더 있으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 주재원들은 대부분 TISA나 BIS를 이용한다.

다. 의료여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의료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며 특히 수도인 바쿠 이외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바쿠의 경우에도 경미한 수술이 가능한 정도이며 복잡한 수술은 어렵다.

라. 교통여건

대중교통은 한국에 비해 저렴하나 시설이 열악하고 노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다. 특히 지하철은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문을 닫지 않고 운행되는 경우도 있는 등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버스 정류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손을 내밀어 버스를 타거나 내리는 것이 때에 따라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최근 도입된 보라색 미터택시를 제외하면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특히 여름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마. 여가여건

아제르바이잔에는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골프장은 1곳 있다. 테니스장은 여러 곳 있으며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은 바쿠 시내에 9곳이 있으며, 볼링장은 시내에 3-4곳 있다. 다만 구소련의 영향으로 오페라, 발레 공연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6. 취항정보

한-아제르바이잔간 직항 노선이 없으므로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주요 경유 노선은 아래와 같다.

주요 경유노선

경유노선	시간표	
	바쿠-경유지	경유지-인천
이스탄불	Turkish Airlines Azerbaijan Airlines	Turkish Airlines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스크바	Azerbaijan Airlines Aeroflot	Aeroflot 대한항공
두바이	Azerbaijan Airlines	Emirates, 대한항공
타슈켄트	Uzbekistan Airways	Uzbekistan Airways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도하	Qatar Airways	Qatar Airways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1)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아제르바이잔 입국 시 여권검사, 수화물 찾기, 세관검사 순으로 이루어진다(출국 시는 반대 방향).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으나, 신고물품이 있을 때에는 세관신고 및 검사를 받는다.

1,000개 혹은 1kg이상의 담배와 개인용도 외의 향수, 10,000달러 이상,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해야 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애완동물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 입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서가 필요하다. 칼, 총 등의 무기, 마약, 과일, 채소 등은 반입 금지품목이다.

2) 거주지 등록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인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 2매, 거주 주택의 등기부 사본,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집주인의 거주동의서, 등록신청서, 수수료 지불 영수증, 여권을 가지고 거주 지역 관할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나. 비자

아제르바이잔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는 아래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 비자신청 시 필요 서류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및 여권 사본
 - 항공권 사본
 - 초청장(반드시 아제르바이잔에서 발행되어야 함)

□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관 연락처

- 업무시간
 - 화, 금요일 09:30~13:00 (화요일 신청 시 금요일 또는 차주 화요일에 사증 수령 가능)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5-23 한남타워 II 1층(140-893)
 - 전화: 02)797-1765~6
 - 홈페이지: <http://azembassy.co.kr>

□ 비자의 종류와 소요 경비

- 비자종류는 아래와 같음.
 - Official(관용여권 소지자에 해당)
 - Business
 - Tourism
 - Employment
 - Education
 - Medical treatment
 - Scientific-cultural-sports
- 소요 비용
 - 싱글: 50달러
 - 더블: 80달러
 - 멀티: 250달러

□ 노동 허가증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노동부와 사회보호부(Social Protection)에서 발행함. 노동 허가서는 1년 동안 유효하다.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매년 연장할 수 있지만, 4회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영주권자, 기업가, 국제협약을 통해 세워진 기업 경영자, 외교 사절단, 국제기관 직원, 사업가(3개월 이내 거주하는), 정부에 등록된 선교사, 대중 매체 직원, 선원, 스포츠맨, 예술가, 대학 연구자와 교수

노동부와 사회보호부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허가증 사본
- 추천서 사본

□ 비자기간 연장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비자만료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비자신청서 사본
- 여권 원본 또는 재입국 허가증
- 수수료 영수증
- 초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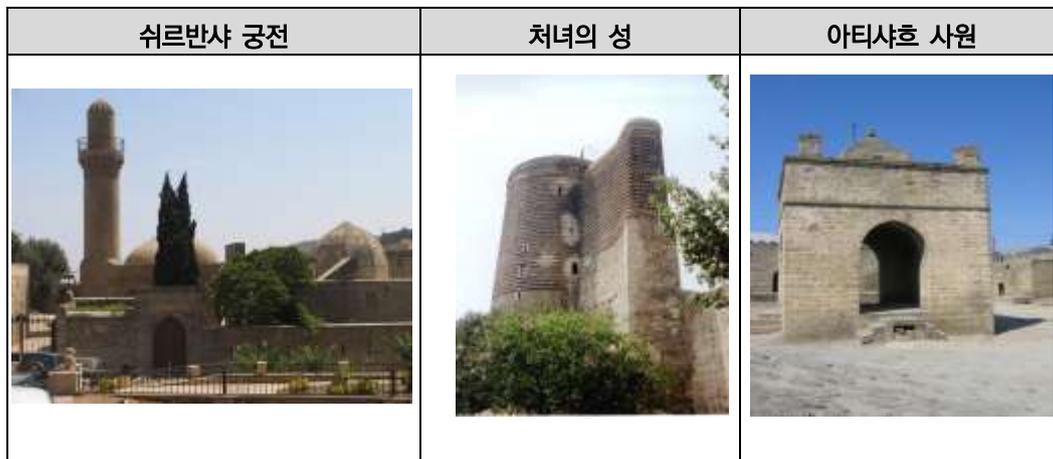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

일반인의 관광이 가능하도록 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매우 드물다. 인근의 터키 등에 비해 볼거리가 빈약하다.

1) 바쿠시

이슬람사원, 세계문화유산 지정인 쉬르반샤 궁전, 국립묘지, 성곽(The Tower of Baku fortress walls), 불의 사원 아티샤흐, 유네스코 지정인 처녀의 성(Madien Tower), 구시가 등이 유명하다.



□ 아티샤흐 불의 사원(The Ateshgah Fire Temple)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拜火教)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 (Zoroastrianism)의 유적인 이 사원은 바쿠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는 불의 사원, 전시관 등을 볼 수 있다.

2) 코부스탄(Qobustan-Land of Gobu)

바쿠시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세계적인 문명 발상지 중 한 곳이라 주장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동굴 벽화와 그 당시 생활 모습과 동굴 벽화의 샘플 등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있다.

코부스탄 벽화



3) 진흙화산(Mud Volcanoes)

코부스탄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걸리며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이 석유 산유국이라는 것을 실감케 해줄 정도로 간간히 지표면에 원유가 솟아 올라와 검게 고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흙화산 전경



4) 구바(Guba)

바쿠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여기서 19세기에 만들어진 Juma 모스크와 Sakina khanum 모스크, 카펫 전시장을 볼 수 있다. 이 카펫 전시장에서는 세계최고박물관에 보존된 카펫 카피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

나. 바쿠 소재 주요 호텔

호텔 리스트

(2013년 3월기준, 환율\$1 = 0.785AZN))

호텔명	숙박료(일반가)	비고
Hyatt Park Hotel (5성급) T)99412-490-1234	Single : 275AZN Double : 295AZN Junior Suite : 525AZN	18% VAT별도 추가
Hyatt Regency Hotel (5성급) T)99412-496-1234	Single : 210AZN Double : 230AZN Junior Suite : 310AZN	
Grand Hotel Europe (5성급) T)99412-490-7086	Single : 220AZN Double : 240AZN Junior Suite : 320AZN	
Qafqaz Point Hotel (5성급) T)99412-510-7878	Single : 220AZN Double : 260AZN Junior Suite : 500AZN	
Premier Hotel (4성급) T)99412-447-5700	Single : 128AZN Double : 148AZN Junior Suite : 168AZN	
Anatolia Hotel (4성급) T)99412-564-1475	Single : 120AZN Double : 150AZN Junior Suite : 150AZN	

다. 쇼핑 및 식당

- Bulvar Park 등 신형 백화점과 명품 가게도 존재
- 그 외에 중앙백화점, 모스크바백화점, 바쿠백화점 등이 있으나 제품의 질과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음.
- 영업시간: 보통 오전 10시 ~ 오후 9시. 대형 마트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
- 바쿠 시내 소재 주요 식당
 - 중식: 홍콩(T:012-436-9001), Jasmine(T:012-404-5404)
 - 이탈리아식: Scalini (T:012-598-2850)
 - 아제르바이잔식: Mugam (T:012-492-4085, 012-492-3176), Karvancara (T:012-492-6668, 012-492-8777), Monte-Cristo (T:012-436-0606, 012-436-0610), Meridian (T:012-422-5555, 012-470-6666)

- 터키식: Sultan (T:012-598-0555), Anadolu (T:012-498-6804), Inter-grand (012-493-4692)
- 일식: Zakura (T:012-498-1818), Mado (T:012-497-5544/5588)
- 한식 식당은 없음.

라. 통역

영어가 잘 통하지 않으며 러시아어나 아제르바이잔어가 통용된다.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기후

아제르바이잔은 온대성기후에서부터 건조 아열대기후 산지툰드라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평야는 건조 온대기후, 남동부의 렌카란 저지대는 습윤한 아열대기후, 이란 인접 지역은 온대대륙성 기후, 해발 2,000m 이상의 산지는 한랭한 기후지대이다.

연평균기온이 평야는 0~15℃로 다양하고, 고산지대는 0℃ 이하이다. 평야지대의 1월 평균기온은 0~3℃, 중간 산지는 영하 3℃~영하 6℃, 고산지대는 영하 10℃ 이하임. 평야지대의 7월 평균기온은 25~27℃이며 여름철에는 최고 45℃까지도 상승한다.

강수량은 지역적 차이가 큼.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압세론 반도의 남부해안, 쉬르반 남동부, 고부스탄 남동부 등지로 연강수량이 200mm 이하이다. 쿠라 저지의 동부, 나히체반 지방의 아라크스강 유역도 200~300mm에 불과하다. 소카프카스 산맥과 대카프카스 산맥의 북동사면은 600~800mm, 대카프카스 산맥의 남사면은 1,000~ 1,300mm이나 되며, 2,000mm를 넘는 곳도 있다. 렌카란 평야 남부와 탈리쉬 산맥의 산록은 1,100~ 1,700mm임. 렌카란 지역에서는 강수의 대부분이 겨울에 집중되며, 산간지역이나 구릉지에서는 4~9월 사이에 집중된다.

나. 시차/근무시간

아제르바이잔 시간은 'GMT+4시간' 이며 한국과는 하절기(서머타임 실시)에 4시간, 동절기 엔 5시간의 시차가 있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이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상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제외). 국방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시간 또한 노동법에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임금의 최소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다. 교통/통신

1) 교통

□ 육상교통

바쿠시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버스, 택시 세 가지가 있다.

- 지하철
 - 설비가 매우 열악하나 요금은 15케픽(= 0.15마나트) 으로 저렴하며 2개의 노선이 있다. 2마나트 짜리 지하철카드 구매 후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버스
 - 요금은 20케픽이며 현금을 내고 이용한다. 지하철과 버스운행 시간은 대략 06:00AM~12:00PM 이다.
- 택시
 - 한국에서처럼 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매번 이용할 때마다 운전사와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보라색 택시는 미터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흥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바쿠 시내 이동 시 택시운전기사는 보통 3-5마나트를 요구하나 외국인들에게는 5-10마나트를 요구한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바쿠 시내로 들어올 경우, 보통 미화 30달러를 요구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철로는 두 개의 주요 노선이 있는데 그 중 한 노선은 카스피해를 따라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나 있으며, 다른 노선은 바쿠에서 조지아로 연결되어 있다. 철도를 이용하여 바쿠에서 조지아까지 갈 경우, 약 14~17시간이 소요 되며 비용은 객차 등급에 따라 35~50마나트가 소요된다. 에어컨이 없는 등 설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선로도 노후화되어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 해상교통

카스피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여서 바쿠는 국제 항구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1990년 중반 이후 성장해 오고 있다. 바쿠에서 카스피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와 이란의 반다르안잘리, 반다르 나우샤 등으로 갈 수 있다

□ 항공교통

항공운송은 193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바쿠, 간자, 나히체반 등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바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카작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국가와 터키, 이란

등 주변 인접국가의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이 개설되어 있다. 국내 주요 항공로는 바쿠~나히체반 항로이다.

2) 통신

□ 유무선 통신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전화 보급률은 매우 낮다. 2008년 말 기준 약 139만 명(보급률 16%)에서 2011년 말 기준 약 158만 명(보급률 17%) 정도만 유선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인 바쿠 시내에서도 공중전화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무선통신의 경우, 1994년 아날로그식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GSM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으며 아제르셀(Azercel), 박셀(Bakcell), 아제르폰(이상 GSM), 카텔(CDMA) 등 4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1년 말 기준 약 970만 명(보급률 104%)이며 서비스 지역은 전국의 약 90%(인구기준)에 이른다.

□ 인터넷

아제르바이잔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일반 가정에서만 아니라 인터넷카페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전화접속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ADSL 수준의 인터넷 이용도 가능하다. 고속 인터넷 요금은 1GB에 약 미화 30달러 정도로 비싼 편이라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비해 보급이 미흡한 편이다.

라. 여행시 유의사항

아제르바이잔은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며 다녀야 한다.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는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1~2Manat이 적당하다.

마. 유용한 연락처

1) 비상 연락처

소방서	101; 4910734
경찰서	012; 4934265; 4958817
응급실	103
가스실	104
전화 시각 안내	106
국제전화 서비스	107
전화번호 안내국	109

2) 콜택시&자동차 렌트

콜택시	62-15-15/ 62-12-44(~47)
AVIS (자동차 렌트)	497-54-55
BTI (자동차 렌트)	493-43-00

3) 한국기관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994 12)-596-79-01(~03)
영사 휴대전화	(994) 50-440-0336
Kotra 바쿠 무역관	(994-12) 436-75-60(~61)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 '세바'	(994 12) 493-13-59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기관명	웹사이트 및 이메일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Web-site: www.economy.gov.az E-mail: office@economy.gov.az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eb-site: www.culture.az E-mail: mugam@culture.gov.az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Web-site: www.mia.gov.az Email: info@mia.gov.az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ular Department	Web-site: www.mfa.gov.az E-mail: secretariat@mfa.gov.az
Ministry of Taxes	Web-site: www.taxes.gov.az E-mail: info@taxes.gov.az
Ministry of Youth and Sport	Web-site: www.mys.gov.az E-mail: myst@myst.gov.az
Ministry of Health	Web-site: www.health.gov.az E-mail: mednet@mednet.az
Ministry of Finance	Web-site: www.maliyye.gov.az E-mail: office@minfin-az.com
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Web-site: www.mns.gov.az E-mail: cpr@mns.gov.az
Ministry of Transport	Web-site: www.mintrans.az E-mail: office@mintrans.az
Ministry of Agriculture	Web-site: www.agro.gov.az E-mail: aqry@azerin.com
Ministry of Defence Industry	Web-site: www.mdi.gov.az E-mail:
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Web-site: www.eco.gov.az E-mail: mineco@box.az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eb-site: www.mincom.gov.az E-mail: info@mincom.gov.az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Web-site: www.mie.gov.az E-mail: mfe@azdata.net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www.edu.gov.az E-mail: office@min.edu.az
Ministry of Justice Department on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Web-site: www.justice.gov.az E-mail: contact@justice.gov.az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of Population	Web-site: www.mlsp.gov.az E-mail: mlsp@gov.az
State Customs Committee	Web-site: www.az-customs.net E-mail: Externall@az-cusoms.net

11. KOTRA 무역관 안내

- 주소: "KERMUR" Plaza, office 304, 12 Basti Bagirova Str., Baku,
- 전화: +994-12-436-7560~61, 팩스: +994-12-436-7562
- 무역관장(홍희) 휴대폰: +994-50-208-0631
- 공항에서 KOTRA바쿠무역관 이동 방법
 - 공항에서 나오면 많은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타기 전 가격 흥정을 한 후 승차 (요금은 20 마나트 정도)

KOTRA 바쿠 무역관(상기 건물3층 소재)



KOTRA 바쿠 무역관 위치도(노란색 별표)

